Entertainment p/18

가수서 배우로 보아 도전장

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9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대한항공 '땅콩 회항' 국제 망신 8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기내 승무원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해 월권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대한항공의 항공기가 게이트로 다시 들어가면서 출발이 지연돼 250명의 승객이 영문도 모르고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

"이륙 준비 항공기 후진시키다니…"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무장에 "당신 내려!"
국토부 "초유의 사례… 법 저촉 여부 검토할 것"

승객은 아랑곳… '슈퍼 갑질'

대기업 오너를 포함한 로열 패밀리와 함께 사회지도층의 끊임 없는 '슈퍼 갑질'이 또 다시 터지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기내 승무원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는 월권행위를 벌여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조 부사장은 기내 땅콩 서비스 문제로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해 이 과정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대한항공의 항공기가 게이트로 다시 들어가면서 출발이 지연돼 250명의 승객이 영문도 모르고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 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고 나서 다시 출발했다.

조양호 회장 조현아 부사장

한 승무원이 일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건넸고 조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면서 승무원을 혼냈다.

대한항공은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에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서 건네야 하는데 무작정 봉지째 갖다 준 것이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를 책임진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고 사무장이 태블릿 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고성을 지르면서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무장에 담당했는지 매뉴얼을 제대로 못 찾았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부사무장에게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해당 항공편은 인천공항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11분 늦어졌다.

항공기가 활주로로 향하다 다시 탑승 게이트로 가는 '램프 리턴'은 통상 기체 이상이 발견됐거나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으로 승무원 서비스 때문에 이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항공법에는 기장이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어 이번 일에 대해 조 부사장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로, 25세에 대한항공 호텔면세사업부에 입사해 31세에 임원을 달며 초고속 승진했다.

특히 지난해 회사에서 잔근 발령을 받는 형식으로 미국 하와이에 갔다가 아들 쌍둥이를 낳아 원정출산 논란을 일으키고 한국으로 복귀한 바 있다.

또 조 부사장의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유명해진 한 대기업 임원의 '라면 상무' 사건과 비교되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조 부사장은 "승무원 폭행사건 현장에 있었던 승무원이 겪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안타깝다"며 "기내 폭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계몽 효과를 보았다"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김유리기자 kim@metroseoul.co.kr

더 많은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 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면세점 담배 많이 사면 정밀검사

밀수 올해 700억원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면세 한도(1인당 1보루)를 넘어 과도하게 담배를 구매할 경우 세관당국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담배 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담뱃값이 내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되면 면세점 수출서류 조작 등을 통한 밀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국산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서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2012년 32억원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 규모는 2013년 437억원, 올해 11월까지 664억원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유출을 막고자 수출신고시 심사와 선적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어 안행부 지자체 등과 담당 내년 1월부터 생산·유통·수출적재 등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민국기자 minj@

여야 원내대표 악수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10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백봉신사상 수상자는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회장 정의화)가 매년 국회 출입기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뉴시스

불체포특권 폐지 보류

여, 출판회 금지 등 4개 혁신안 추인… 반쪽짜리 지적도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가성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마련한 5개 혁신안 중 4개만 추인했다.

이날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지적된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정하려던 방안이 보류됨에 따라 '반쪽 혁신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1일 의원들의 반대로 추인이 무산됐으나 이날 두번째 시도에서 부분 통과시킨 것이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국회 브리핑에서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가 올린 모든 안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그러나 체포동의안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데 동의했지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다시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정해진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수당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겸직을 불허하되 공익 업무는 예외로 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불체포특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위가 제시한 개정안은 국회의가 중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폐기되는 게 아니라 회기 만료일까지 계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적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현정기자 hj@metroseoul.co.kr

세계정책회의 개막식 참석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차 세계정책회의(World Policy Conference) 개막식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기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바로 왼쪽은 티에리 드 몽브리알 회장. /연합뉴스

"북핵 개발이 동북아 최대 불안 요인"

박 대통령 "신뢰 결핍 풀기 위한 신뢰 외교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은 분단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최대의 불안 요인이자 세계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핵개발 자체의 한계 요인으로 무엇보다 먼저 국제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을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신뢰 구축 ▲동북아에서의 신뢰 회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동아시아의 신뢰 결핍을 풀기 위한 '신뢰 외교' 등 추진하고 있다며 세부 구상을 설명했다.

'한반도에서의 신뢰 구축'과 관련, 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갈등의 기저에는 신뢰의 결핍이 자리잡고 있으며 동아시아 제반문제 해결은 냉전의 고도로 남아있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신뢰 회복'에 대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원자력 안전과 기후변화, 재난 구호, 에너지 안보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분야에서부터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축적하면 유럽에서와 같이 다자간 협력으로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현정기자

'靑 문건' 공방… 정기국회 파행 우려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앞두고 소득 없이 회기를 마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법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양측간 '비선 실세' 공방이 격화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결국 취소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로 일축, 이에 반발한 야당이 문건에 등장하는 정윤회씨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모두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나 수사 의뢰함으로써 정국의 대치 상황은 더욱 비상이 걸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9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 '세 모녀 3법' 등 기존에 합의한 일부 민생 법안만 처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는 입법 처리 측면에서 근래 들어 최악의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등 박 대통령의 3대 혁신 과제와 부동산 활성화 법안 등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미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의견이 대다수다. /조현정기자

한중 FTA와 글로벌 점유율

기자 수첩
박성훈 <경제산업부 차장>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정유, 철강.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다. 그런데 이들 산업군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최근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을 8개 산업으로 재구성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중심으로 중국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처럼 현재 우위에 있는 분야도 조만간 중국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국이 이처럼 한국의 효자 산업을 빠른 속도로 잠식할 수 있는 원동력은 13억명이 버티고 있는 거대한 내수시장이다.

자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만 담보된다면 중국 기업의 승승장구는 시간 문제다.

결국 많은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도 '차별화된'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스마트폰 강자 한국이 중국에 밀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샤오미, 화웨이 제품과 겨룰 수 있는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내놓거나 아이폰과 같은 프리미엄 제품보다 상품성이 뛰어난 단말기로 승부해야 한다.

샤오미급 성능인데 가격이 비싸거나 아이폰 수준의 가격인데 디자인이 떨어진다면 중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살아남기 어렵다.

글로벌 점유율을 따지려면 중국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중 FTA가 본격화하면 중국의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물건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뉴스&뉴스

정부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 유감"

●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8일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런 합의에 맞게 남북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수능 출제 오류 피해자 구제법 의결

●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안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무성, 2+2 회의서 '靑 문건' 논의 시사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조만간 가동될 예정인 '2+2 연석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2+2 회의'의 의제와 관련, '청와대 문건 유출 얘기도 거론할 것이냐'는 질문에 "무슨 얘기든 다 나올 것"이라며 "모든 논의는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지방국세청장>

'청와대 문건' 제보자 소환

'비밀회동' 직접 목격 못한 듯
박 경정과 대질 방안도 검토
정윤회씨 내일 검찰에 출석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관련 문건의 제보자를 8일 소환해 비밀회동의 숨은 틀을 짜맞추기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재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 유출 과정 등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박 경정에게 정씨와 청와대 10인의 회동설을 처음 언급한 P씨도 함께 불렀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할 때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의 모임을 실제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제보자를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박 경정에게 비밀 회동을 제보한 P씨는 전 지방국세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P씨 역시 실제 모임에 참석하거나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박 경정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씨와 박 경정을 대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윤회씨를 10일께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모임의 실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정씨와 청와대 핵심 3인 비서관 등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 내역 등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씨가 박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문건 작성 경위를 따졌을 때 박 경정이 '위에서 지시한 대로 나이만 썼다'고 주장한 부분도 확인할 방침이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내복 입고 에너지 절약하세요 홍군사간디를 이용한 '겨울철 내복 입기'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전국 10개 정부청사에서 열렸다. 공무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열린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로비에서 행정자치부 직원들이 캠페인 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13개구 복지비 늘어 재해 예비비 줄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이 재해 재난 등에 대비하는 예비비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구청 25곳이 구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다른 분야의 예산 비율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25개 구 전체의 내년 예산 규모는 10조794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5% 증가했고,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5조 275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2%다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부문 비율이 50%를 넘는 자치구가 노원구(61.2%), 강서구(60.3%)를 포함해 25개 구 중 13곳을 기록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올해는 10개 구였다.

복지비 비중이 40%를 넘어가는 자치구는 21곳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복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16.4%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동작구(3.8%)였다.

자치구들은 부족한 예산을 메우려고 재해 재난 등 긴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다. 특히 5개 자치구는 처음으로 예비비 비중이 일반회계 예산액의 1% 밑까지 떨어졌다.

/송주원기자

서울시향 이번엔 인사 비리 적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박현정 대표이사와 정명훈 예술감독 간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가운데 서울시향 내부 인사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서울시 감사 결과 확인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향 특정감사 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시향은 2013년 6월 정원 외 계약직 팀원으로 뽑은 A씨를 근거규정 없이 차장으로 임명했다.

애초 이사회 의결안과 서울시 문화정책과가 승인한 통보문에는 '정원외 계약직 팀원 2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었지만 시향이 낸 채용 공고문에는 2년 계약에 성과에 따라 채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만 쓰여 있었다.

정원외 계약직 팀원으로 들어온 A씨는 단번에 차장직을 맡아 일반 정규계약직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체결했다.

최종합격자에 대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여부를 확인하는 신원조회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 달 만에 팀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6월 3일 신규 채용된 A씨는 인사고과도 받지 않고 7월 11일 인사위 의결을 거쳐 바로 팀장이 됐다.

서울시 감사가 시작되자 시향 측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송주원기자

루돌프 타요버스 '씽씽'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수유동 동아운수 차고지에서 산타 복장을 한 기사들이 루돌프 타요버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내년 1월 초순까지 눈동자가 움직이는 '루돌프 타요 버스' 25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필리핀 태풍에 한국 관광객 1000명 발묶여

필리핀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1000여 명이 태풍 '하구핏'에 발이 묶였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보라카이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태풍에 따른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태풍이 상륙하기 직전인 3일과 4일 필리핀항공과 세부퍼시픽, 에어아시아 등 현지 항공사를 이용해 보라카이에 도착했다.

필리핀이 태풍 영향권 안에 들어간 5~6일에도 일부 여행자는 현지를 찾았다. 이에 따라 필리핀 내 주요 관광지에 있는 전체 한국인 관광객 수는 1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필리핀 당국은 하구핏이 중부 동사마르 일대에 상륙한 다음 날인 7일부터 주변지역 공항 4~5곳을 폐쇄했다. 8일 운항 예정이던 마닐라발~인천행 항공편 등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항공편 176편 등 194편의 운항도 취소됐다.

필리핀 기상 당국은 태풍 하구핏이 오는 11일쯤 필리핀 권역을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선미기자 ossemo@

'장기 없는' 토막시신은 A형 여성

경찰, 전국으로 수사 확대

경기 수원 팔달산에서 발견된 '장기없는' 토막시신의 혈액형이 A형으로 8일 확인됐다.

전날까지 팔달산 수색에서 옷가지, 신발 등 200여 점이 수거됐지만 사건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팔달산 수색 중 발견된 과도 1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유일한 사건 단서인 시신이 담겨있던 비닐봉지, 그 안에 있던 목장갑의 출처 등을 조사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시신 발견지점 주변 접근로에 설치된 CCTV 10여 대와 주변 주택가 CCTV 영상을 분석, 용의차량을 찾는데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올해 수원과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미귀가자, 실종자, 우범자 등을 중심으로 사건 연관성을 탐문하고 있다. 경찰은 탐문 대상을 경기도 전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날 오전까지 접수된 시민 제보는 19건으로, 이 중 9건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10건에 대해 확인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 뒤편 팔달산 등산로에서 등산객 임모(46)씨가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훼손된 상반신 시신(가로 32㎝, 세로 42㎝)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주영기자

"변양호에 뇌물 전달 진술…배상책임 없다"

변양호(60)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김동훈(66) 전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 전 국장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5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기아차 부품공급업체의 부채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2억원을 변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2심은 "김씨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방어권을 남용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변씨의 상고를 기각해 그의 패소를 확정했다.

/송주원기자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Russia

metro Brazil

Casos de Aids entre jovens crescem 21,5'

에이즈로 하루 평균 4명 사망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만 하루 평균 4명이 에이즈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상파울루 보건부는 에이즈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7년 동안 상파울루 시민 전체 감염자 수는 8492명에서 6830명으로 20% 감소했다. 감염자 수는 줄어들었으나 상파울루에서만 하루 평균 4명이 에이즈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에만 1547명이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다.

metro France

Tarn-et Garonne : un enfant ligoté et passé à tabac dans l'école

초등학교 집단폭행… 피해자 트라우마

프랑스 남부 미디피레네주의 도시 카스텔사라쟁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최근 집단 폭행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드로 뜨라에 따르면 7세 학생이 발과 손이 묶인 채 집단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7세에서 10세의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피해 학생 부모는 충격에 빠진 채 가해 학생들을 고소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후 피해 학생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metro Hongkong

強國客修路為綠卡

미국 도로 건설에 중국 투자자 몰려

중국 투자자의 미국 투자 범위가 부동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 투자자 100여 명이 펜실베니아주 유료도로와 I-95 고속도로 연결 공사에 50만 달러(약 5억5600만 원) 투자 신청을 했다.

이 도로공사에는 4억2000만 달러(약 4671억원)가 소요될 예정이다. 미국은 해외투자자 400명을 유치해 2억 달러를 조달하고자 한다. 나머지 2억2000만 달러는 연방정부와 유료시스템에서 제공한다.

이 사업의 자금지원 펜실베니아주 유료도로위원회는 현재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태다. 투자이민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2억여 달러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다. 이민으로 투자를 받으면 위원회는 3500만 달러의 대출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금리는 지방정부 대출금리의 절반인 연 2%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 협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5년 후 현금 또는 지방정부 채권 형식으로 수익을 돌려주게 된다. 채권가격은 고정적이어서 금리가 상승하면 5년 후 투자자들에게 환원되는 채권은 50만 달러가 되지 않는다. 해외투자자들이 지불한 50만 달러는 금리 상승에 따른 악영향을 예방하는 헤지펀드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도 이 사업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중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위원회는 중국 투자자들이 출자하면 미국 법률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지난 9월부터 홍보했다. 심지어 중국 중개업자에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신용 1등급 미국 핵심고속도로 사업'이라고 광고했다.

/정리=조선미 기자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청일점

국제대회 혼성팀 출전해 박수… 여자 선수들 속 외롭지만 올림픽 메달 목표

러시아 유일의 남성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가 국제 대회에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화제의 주인공은 알렉산드르 말리체프(19). 최근 혼성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팀을 꾸려 대회에 출전했다.

말리체프는 10여 년 전 어머니의 권유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시작했다.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소년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팀이 결성됐다. 그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수영도 할 줄 몰랐다"며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덕분에 수영은 물론 무용,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운동을 섭렵했다"고 말했다. 말리체프는 "남자 선수가 없어 사춘기 때는 체조 종목으로 전향할까 고민도 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과 놀림 속에도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말리체프는 여자 선수들 사이에서 고독한 길을 걸고 했다. 운동을 하면서 '성차별'을 받기도 했다. 어릴 적에는 여자 애들이 하는 운동을 한다며 또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고, 사춘기 때에는 여자 선수들과 학부모들이 그를 부담스러워했다.

그는 "남성팀이 없어 코치가 여성팀에 나를 넣자 학부모들의 반대가 엄청났다"며 "결국 팀에서 나와 비공식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사람들의 반대뿐 아니라 남자 선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대회도 없었다"며 "오기가 생겨 더 열심히 운동을 했다. 10여 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생겨 이제는 세계 대회에도 출전하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현재 말리체프는 러시아 국립 체육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는 "2010년도부터 러시아 국가대표 팀의 남자 선수로 발탁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며 "힘들고 외로운 때도 있지만 올림픽 메달의 꿈을 위해 계속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모드라 베스티코바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농사는 국가 근간… 돈 있어도 못먹는 날 곧 와"

"지구 살리자" 기본 뜻…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소비자 직거래

사람이야기

■김성희 '한살림' 기획실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는 최근 누적 관객수 9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개봉한 외화 중 역대 흥행 3위를 기록했다. 이 작품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멸망해 가는 지구를 버리고 새 희망을 찾아 우주로 떠나는 탐험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과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는 이 영화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환경 파괴로 더 이상 지구에서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지구를 살리자는 뜻을 함께 하며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에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일하는 이들이 있다. 농사짓고 물품을 만드는 생산자들과 이들의 물품을 믿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함께 결성한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다. 10년 넘게 이들과 일하고 있는 김성희(50) 기획실장을 만났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는 농사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한 그는 많은 386 세대가 그런 것처럼 국가와 인간, 노동 등에 대해 고민했다. 대기업 홍보실을 거쳐 잠깐 월간지 기자 생활을 하며 잠시 도시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귀농의 뜻을 품었다. 이런 그에게 2004년 은명처럼 '한살림'이 손짓을 보냈다.

"고추 씨앗 하나로 수많은 고추를 생산하고, 고추는 또 수많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씨앗을 가득 품고 있죠. 가치를 생산하는 인간의 일 중 농사처럼 능률 있고 보람된 일은 드물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런 가치 있는 농사를 무시했다. 이미 중요 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2012년 기준 국내 식량 자급률은 22.6%에 지나지 않는다. 쌀로 그나마 2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쌀을 제외할 경우 자급률은 3.7%로 떨어진다. 충격적이다.

"지금도 식량이 없어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나라는 허다해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 동남아 등지에서 농작물을 사다 먹지요.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다 먹지 못하는 시대가 곧 올겁니다. 에너지는 없으면 안쓰면 되지만 식량은 다르죠."

◆86년 작은 쌀가게로 '한살림' 시작

'한살림'은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사회운동을 하던 박재일 전 회장이 1986년 농민들과 함께 무농약 쌀과 잡곡, 참기름, 유정란을 가지고 서울 제기동에 쌀가게 '한살림농산'을 열면서 시작됐다.

2년 뒤 생명농업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운동을 펼치며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 절제된 소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생활을 실천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이들은 우리밀 보리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고, 토종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하는 흙살림 연구소를 창립했다. 현재 한살림 조합원은 47만 세대를 넘어섰다.

한살림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회비만 내면 되지만 생산자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일정 지역 농민들이 뭉쳐 공동체를 결성하고 몇년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이 기간 세밀한 검사가 진행된다. 지역 단위로 생산자 조직을 가입하게 하는 것은 농민 한 사람이 친환경 농사를 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농약을 살포하면 이것이 건너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부 인증제도는 2001년 시작됐지만 한살림은 이미 86년 창립 당시 엄격한 인증제도를 마련해 이를 적용해 왔어요. 이후 한살림을 따라 만든 생협들이 여럿 생겼고,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지요."

◆생산자 소비자 만나 가격 책정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한살림은 농산물 가격을 독특하게 책정한다. 연말 생산자 소비자 대표들이 만나 한해 농산물 수요량을 예측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생산자는 이를 통해 공급량을 조절하고 소비자는 약속한 농산물을 전량 소비해 준다. 한번 정해진 가격은 일년 내내 변동없이 유지된다.

"재미있는 것은 가격이 정해질 때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데 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고 하고, 농민들은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는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우린 이 정도면 됐다. 올리지 말아라'라며 소비자들을 걱정해 줘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죠."

한살림 매장에 가보니 없는 농산물이 없었다. 닭, 돼지, 소 이건 한살림에서 허가한 재료를 먹여야 하고 일정 공간을 뛰어놀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유나 햄, 고기 등 가공 제품을 생산한다. 한살림은 완벽한 가공공장과 유통라인을 갖추고 있다.

김성희씨는 최근 한살림에서 일하는 농부 16인의 이야기를 묶어 '살리는 사람 농부'를 출간했다. 초기 무농약 농사를 시작하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더 늙기 전에 한살림의 농부가 되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어야죠."

/김문 조기자 ekim@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삼성·LG전자 사용자 중심 마케팅

'삼성 체험행사' 'LG전자 콜라보 부스'

삼성전자 트렉 특별 체험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사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기기인 기어S를 전면에 내세웠고, LG전자는 최근 스마트 리빙 가전으로 주목 받고 있는 무선 오디오 시스템과 독특한 공간 활용이 특징인 모듈형 철제가구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자전거 제조사 트렉 매장에서 스마트 워치 '삼성 기어S'의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트렉 매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방문객들은 기어S의 'S헬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전거를 타면서 거리·속도·심박 등을 측정해 라이딩 기록을 관리하는 기능을 체험했다.

기어S는 GPS(위성항법장치)와 심박 센서를 통해 운동 효과를 측정하며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S헬스'와 연계해 운동 기록 확인과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준다. 이번 체험 공간은 신사동과 용산 두 곳에서 내년 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LG전자는 11일~14일까지 나흘간 코엑스 전시홀에서 진행되는 '2014 홈 테이블데코페어'에 서울 예 가구 브랜드 더밀백토리와 공동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서 LG전자는 지난 10월 대구 홈&테이블데코페어에서 혼수패키지로 큰 인기를 얻었던 LG 사운드바에 이어 신모델 'LG 스마트 오디오'를 전면에 내세우며 더밀백토리의 모듈형 철제가구와 컬래버레이션 부스를 꾸민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무선으로 즐기는 LG 스마트 오디오의 고품질 사운드와 모듈가구의 다양한 공간 활용성을 바탕으로 '똑똑하고 실용적인 가전과 가구가 어우러진 스마트 & 이지 라이프스타일' 컨셉트 체험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LG전자는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인 스마트 오디오의 성능을 체험해 보는 것 뿐만 아니라 특가 이벤트를 통해 합리적 가격에 만나 볼 수도 있어 오디오 구입을 고려 중인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성용기자 yow@

market index <8일>

코스피	코스닥
1970.95	551.40
(-7.07)	(+0.55)
금리	환율
2.22	1120.00
(+0.05)	(+0.50)

메이드 인 차이나 추격자 된 한국

스마트폰 등 6대산업 점유율 밀려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곧 추월 우려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 상당수가 중국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철유 철강 등 6대 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 뒤져졌다.

현재까지 우위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도 조만간 중국에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을 8개 산업으로 재구성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중심으로 중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스마트폰은 지난 2분기 판매량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에 1.2%p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레노버·샤오미 등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기업 9곳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합계해 우리나라 삼성·LG의 세계시장 점유율 합계를 비교한 결과 중국은 31.3%, 우리나라는 30.1%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고가 제품군에서는 애플·아이폰의 인기가 여전하고 중저가 제품군에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까지 겸비한 중국 업체의 다양한 제품이 자국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산업은 중국 기업이 생산만 자율만 따로 집계한 결과 2009년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 우리나라는 (337만대 5.4%) 46만대 차이로 중국(291만대 4.7%)보다 우위였지만 2009년에 243만대 가량 격차를 보이며 역전됐다.

이후 2013년 우리나라의 생산량은 863만대(9.8%), 중국은 1097만대(12.5%)로 조사됐다.

에틸렌 생산능력을 국가별 세계시장 점유율 비교 기준으로 사용하는 석유화학산업은 2003년 우리나라 585만t(5.34%), 중국 578만t(5.27%)으로 우리나라가 약간 우세를 보였으나 2004년 중국이 역전한 이후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835만t(5.4%), 중국 1876만t(12.2%)으로 1041만t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10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우리나라 3.6%, 중국 12.5%를 기록했다.

조선·해양산업에서도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수요 진작과 금융지원으로 조선 해양시장 3대 지표인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전 부문에서 모두 세계 1위(2013년)를 기록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 체결은 중국의 내수시장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주력산업을 다시 구출할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훈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올레 ARS 안심인증 KT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 '올레 ARS 안심인증'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때 결제창에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ARS로 해당 결제 사실을 다시 확인해준다. /KT 제공

직장생활, 장그래보다 한석율

장그래보다는 한석율이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와 기면을 쓴 사람이 연결했을까' 큰 며년 청림출판사와 함께 직장인 716명을 대상으로 인기 드라마 '미생'에서 가장 탐나는 가면을 조사한 결과 한석율이 43.4%로 1위에 올랐다. 친화력 넘치고 와가 나도 웃을 수 있는 유머의 가면이 직장생활에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뒤에는 실력을 감추고 선배를 따르는 추종의 가면을 쓴 '안영이'(20.7%), 속은 단단하지만 남들 눈에는 순해 보이는 약세의 가면을 쓴 '장그래'(13.6%). 일을 위해서는 사내 권력과의 대립도 개의치 않는 능동의 가면을 쓴 '오상식 과장'(12%) 등의 가면을 원하는 직장인도 많았다.

이같은 가면이 필요한 이유로는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50.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17.1%), 평판을 관리하기 위한 자세술(14.1%), 나만 가면을 안 쓰면 손해를 보기 때문(11.7%) 등이 뒤를 이었다. /이국환기자 [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illegible] 무교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4·3
독자센터 02)721-9861
2005년 5월 24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가00340

IT업계 '엔젤산업' 공들이기

삼성·LG전자 후지필름 등 다양한 신제품 이통사도 유아용 경쟁

유아 및 키즈 시장이 정보통신업계(IT)의 주요산업으로 급부상 중이다.

최근 어린이들을 주 고객으로 삼은 '엔젤산업'이 다양한 산업에서 호황을 누리자 IT업계에서도 영유아 맞춤형 제품뿐만 아니라 직접 소비 주체인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기기와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새로운 고객층으로 각광받고 있음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출생아가 2012년 9.6명에서 2013년 8.6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양육비 지출은 2003년 당시 아이를 5살까지 키우는데 약 4000만원 들었던 육아비용은 2012년에 6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출생률은 감소하는 반면 가정에서 지출되는 육아비용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요 IT업체들은 키즈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의 성장과정을 한 권의 앨범에 담을 수 있는 포토북이다. 한국후지필름이 1세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토북 구매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83%에 달했다. 후지필름이 지난달 출시한 초고화질 은염 포토북 '이어 앨범'은 일정 기간을 선택하면 해당 기간 중 찍은 사진을 5분 만에 한 권의 앨범으로 만들어주는 디지털 사진 인화 서비스다.

LG전자 키즈패드2

스마트캐스팅, 스마트레이아웃, 스마트셀렉트 등 첨단 편집 기술이 활용됐으며 최고퀄질 무광 인화지를 사용해 사진 본연의 색감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다.

교육용 태블릿도 인기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3 키즈'는 1500여개의 프리미엄 학습 콘텐츠와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키즈월드', 어린이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모아 놓은 '키즈스토어' 등이 탑재돼 있다.

LG전자도 2012년 출시했던 '키즈패드'의 후속작 '키즈패드 2'를 출시하며 연말 보상판매를 하는 등 유아 교육시장 공략에 나섰다.

대교CNS는 영·유아용 7인치 태블릿 '꿈꾸는 달팽이 키즈 교육탭'을 선보였다. YBM도 교육용 태블릿 'YBM 터치터치 잉글리시'를 판매 중이다.

또 이동통신사도 아이의 현편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탑재한 저렴한 키즈 전용 휴대전화를 출시하고 친환경적 요소를 탑재하는 등 키즈 서비스에 적극을 곤두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이 출시한 'T키즈폰 준'은 손목시계 또는 목걸이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로 지난 9월 누계 가입자 5만명을 돌파했다. LG전자 역시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웨어러블 키즈밴드 '키즈온'을 출시. 두 제품 모두 간편한 통화와 24시간 자녀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업계 관계자는 "출산율은 줄어든 반면 육아비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소수의 자녀에게 소비가 집중되는 사회적 기조에 맞춰 IT업계에도 영유아와 키즈를 대상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운기자 [illegible]

직구 뜨니 택배 난다

상의 "내년 택배 호황" 전망

내년에는 해외직구 증가로 택배업이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 물류담당 임원, 학계, 연구소 전문가 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물류시장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0%가 '내년 물류경기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보다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은 28.0%였고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1.0%로 집계됐다.

경기가 가장 좋을 물류업종으로 전문가들은 '택배'(76.0%)를 꼽았다. 이어 '창고 보관'(41.0%), '3PL'(35.0%), '항공운송'(35.0%), '포워딩'(32.0%), '육상운송'(26.0%), '해상운송'(24.0%) 등을 차례로 선택했다.

대한상의는 "택배업의 경우 전자상거래와 TV홈쇼핑 시장의 확대, 해외직구 증가, 경기불황기에 따른 알뜰 소비족 증가로 계속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물류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로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변동'(43.0%)을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국내 물류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최근 물류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역직구시장을 공략하고 옴니채널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중국, 베트남 등 신규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며 "아울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 물류기술을 도입해 물류효율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KMU 국민대학교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기업융합법학과

2015학년도 정시모집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수능없이 대학을!

- 재직자 맞춤형 교육 시스템 (주중 야간, 토요일 수업개설 / 사이버강의 / 계절학기 운영)
- 다양한 장학제도 (2015학년도 신입생 법과대학 특별장학금 지급예정)

1.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 **아래의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중 1개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2. 전형일정 : 원서접수기간 (인터넷접수)
   2014.12.19 (금) ~ 2014.12.23 (화)

3. 원서접수방법
   국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 또는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 및 방문접수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자세한 내용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홈페이지 참조**
Tel. 02-910-4500 / http://law.kookmin.ac.kr

법무대학원

1. 모집일정
   - 접수기간 **2014.12.12.** (금) ~ **2014.12.23** (화) 인터넷 및 방문접수
   - 전형일자 **2015.01.10.** (토)

구 분	모집전공	수업진행	졸업요건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4학기제)	▪ 지적재산권 ▪ 세법 ▪ 손해사정 ▪ 보안법무 ▪ 국제인권법무 ▪ 부동산법무	▪ 토요일 전일수업 (10:30 ~ 16:30) ※전공에 따라 주중 강의 가능 ▪ 이론 강의, 실무 특강, 사례연구 ▪ 일부 강의 온라인 강좌 수업	▪ 졸업논문 이수학점 (24학점) ▪ 논문제출면제 이수학점 (30학점/평점평균 3.0 이상)

※공무원은 수업료의 30% 해당하는 장학금 지급

2. 지원자격
   -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015년 2월)
   - 관련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및 기준 : 구술 면접

※ **법무대학원 주소 및 문의처**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법학관 402호 법무대학원 교학팀
Tel. 02) 910 4254, 4482 / Fax 02) 910 4489 http://ifl.kookmin.ac.kr

은행권, 캐릭터 마케팅 "눈에 띄네"

고객에 친근하게… 기업 브랜드는 강화

주요 은행들이 전용 캐릭터와 서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객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기업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전용 캐릭터를 내년 1월 2일 공개한다.

우선 기업은행은 최근 '고객과 함께 하는 IBK 로봇'이란 콘셉으로 로봇 캐릭터를 만들었다. 기업금융에 강한 은행의 첨단 이미지를 캐릭터로 형상화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더불어 로봇이 고객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이미지를 보여줘 평생우원자로서의 기업은행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 측은 로봇 캐릭터를 각종 홍보와 마케팅, 상품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꿈을 실현하는 희망찬 금융의 날개 짓'을 콘셉트로 전용 서체도 만들었다. 개발된 서체는 내년부터 상품 브랜드, 통합기업이미지(CI), 마케팅, 홍보 등에 널리 활용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향후 캐릭터와 전용 서체를 소개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활용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남은행은 최근 '큰KN'이라는 카드상품 브랜드 출시에 맞춰 '큰도리(KNDORI)'라는 캐릭터를 도입했다.

'큰도리'는 경남은행의 카드상품 공식 캐릭터다. 새롭게 태어나는 경남은행이 지역민과 나아가서는 온 국민, 온 기업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강하고 반듯한 은행으로서 큰도리를 다해 최상의 카드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캐릭터 마케팅을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1년 "신이와 한이"라는 고유 캐릭터를 개발해 선보였다. 신이와 한이는 신한은행 브랜드 경영의 하나로 만들어졌으며 인간에게 가장 친숙하고 믿음직한 강아지와 곰을 이뤄주는 요정을 모티브로 한 강아지 요정으로 디자인됐다. 맑고 큰 눈은 순수함과 통찰력을, 반짝이는 하트형 코는 섬세한 감각을, 밝은 미소는 긍정적인 성격을, 편 날개는 꿈을 향한 비상을 상징한다.

친근하고 귀여우면서도 신뢰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신이 한이 캐릭터는 현재까지도 영업점 통장, 카드, 광고 홍보물, 사은품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활용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적금 상품과 3D 캐릭터를 접목한 신개념의 'KB 말하는적금'을 지난 2012년 선보였다.

이 상품은 20~30대 젊은 층이 주요 타깃이다.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젊은 층이 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KB 말하는 적금' 애플리케이션에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가미했다. 캐릭터는 감정 상태에 따라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터치할 때마다 익살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사용자가 하는 말을 따라하고 알람기능을 설정하면 귀여운 목소리로 단잠을 깨워주기도 한다.

이밖에 금융권에선 전용 서체 개발도 활발하다.

지난 2009년 3월에는 하나은행이 '하나체'를 선보였으며, 지난해 7월에는 신한카드가 전용 서체인 '신한세빛체'를 공개했다.

/김민지기자 minij@metroseoul.co.kr

현대해상, 해외진출 본격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최근 독일과 미국 등에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국내 손보사 중 처음으로 내년 상반기중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사무소장 채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수 대상은 미국 동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형 보험사로 전해졌다.

최근 현대해상의 해외자산도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33억1600만 달러였던 현대해상의 해외 자산은 1년 만에 71억720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경쟁사인 삼성(41%), 동부(27.1%), 메리츠화재(31%), LIG손해보험(21.4%) 등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다.

해외진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독일 보험업계 진출은 물론 미국 현지서 직접 영업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현대해상의 해외진출에 대해 저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운용 이익률 하락, 자동차와 장기보험 손해율 증가에 따른 실적부진을 겪으면서 이에 따른 자구책으로 보고 있다.

현대해상은 실제 장기보험 성장률 둔화와 자동차손해율 증가로 3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22.3% 감소한 506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자동차 손해율 증가를 비롯해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대해상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다양한 불황 타개 방법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독일 사무소 신설과 미국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형석기자 khs84@

마음나눔 PC 기부 KB국민카드는 8일 서울 중구 내수동 KB국민카드 본사에서 국제정보기술민간협력기구(이하 WTIT)에 재생 PC 200여대를 기부하는 마음나눔 PC 기부 행사를 가졌다.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오른쪽)이 김현종 WTIT 이사장에게 마음나눔 PC를 전달하고 있다. /KB국민카드제공

/우리은행 제공

"두 명이 동시 환전때 80%까지 우대"

우리은행, 우리두리 해외로 이벤트

우리은행은 8일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이해 최대 80%까지 환율우대 혜택을 주는 '우리두리 해외로 환전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이벤트는 해외여행과 유학,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미화 500불 상당 이상을 환전하는 고객에게 주요 통화(USD, JPY, EUR)에 대해서는 50% 환율우대를 해준다.

기타 통화(CNY, HKD, THB, SGD, CAD, AUD, GBP, CHF, NZD, DKK, SEK, NOK)는 30%까지 우대받을 수 있으며 두 명이 동시에 영업점을 방문해 각각 미화 500불 이상을 환전하면 추가로 30%를 더 우대해 최대 80%까지 우대환율을 적용한다.

또 미화 2000불 이상 환전하는 경우에는 동반인원이 없어도 80%까지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환전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신라면세점 할인쿠폰과 공항철도 할인권이 주어진다. 아울러 환전 고객 중 이벤트 기간 동안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우리카드를 사용한 후 우리카드 홈페이지에 응모를 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 추첨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환전 이벤트는 해외여행시 동반여행이 많은 점을 고려해 가족과 친구, 연인, 직장동료 등과 같이 두 명이상 동시에 환전하면 추가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최대 우대율 또한 기존에 실시했던 이벤트보다 10% 더 많은 80%까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고, 각종 할인권과 우리카드가 제공하는 푸짐한 경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ex1003@

외제차 보험사기 30명 적발

3년간 687건 사고 내 42억원 챙겨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사기에 취약한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량 대물사고 중 외제차량 대물사고와 미수선수리비 다수 지급건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총 687건의 보험사고로 사기 보험금 41억9800억원을 편취한 3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밀 조사는 최근 물적(차량)담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외제차 보험사기가 보험금 누수에 일부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시됐다.

외제차의 경우 파손 차량을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에서 저가에 수리 시 그 차액으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으로는 ▲사연 간 가해피해공모(7명, 2억1700만원) ▲외제 중고차 딜러의 직업적 보험사기(1명, 5600만원) ▲구식 중고차, 고급튜닝 등 피해사설(2명, 3800만원) ▲신규 위반차량 등 상대 고의사고(20명, 38억3600만원) 등이다.

지인 간 가피공모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혐의자 A 등 친구 4명이 지난해 3월경 사전 공모해 BMW·벤츠·인피니티 차량을 이용해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차량 미수선수리비 21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이어 대심기간 중 4종의 수입차량으로 16회 고의사고를 유발, 8300만원의 미수선수리비를 가로챘다.

보험사기 특징으로는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 사고조사가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 대부분 경미한 차량사고를 다수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수리비 등 대물보험금은 33억6000만원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지만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은 8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사기자의 사고당 평균 수리비는 490만원으로 외제차 전체 평균 수리비의 2배, 국산차의 6배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미수선수리비율 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기의 경우 차수리비 중 20억3000만원(60.5%)을 미수선수리비로 처리됐다. 이는 손보사 평균 미수선수리비 처리비율(8.8%)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들은 또 보험사가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으로 수령한 미수선수리비와 실제 수리비용과의 차액을 조과이득으로 취했다.

보험사는 부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로 과도한 렌트비용을 우려해 현금으로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안화기자 khs8641@metroseoul.co.kr

"여행 떠나기 전 환전혜택 받으세요" 하나금융그룹은 8일 하나·외환은행이 겨울 여행 성수기를 맞아 'Happy Winter 환전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말까지 열리는 이번 환전 이벤트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국내 영업점을 제외한 전 영업점에서 환전하는 모든 개인고객이 대상이다. /하나금융그룹 제공

KRX금시장 성장세 지속

일평균 거래량 10.5kg 누적 입고량 700kg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개설된 KRX금시장이 개장 5개월 여 만에 하루평균 10kg이 넘는 거래량이 오가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최근 국제 금값이 하락하면서 반등을 노린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 일평균거래량은 지난 5일 기준으로 10.5kg으로 집계됐다.

시장 개설 초기인 3~4월 4kg 수준 규모에서 지난 10월 5.5kg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고서 11월 9.4kg에 이어 12월 두자릿수를 돌파했다.

KRX금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개설 초기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개설 첫 달인 3월 1억8600만원에서 4~8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9월 2억900만원, 10월 3억5700만원, 11월 3억9100만원, 12월 5일 4억4900만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KRX금시장의 시세와 국제 금시세의 격차도 줄어졌다.

국제가 대비 KRX금시장의 가격은 개설 초기 101.4%였으나 현재 100.5% 안팎으로 내려왔다.

특히 최근 한 달간은 100.3% 안팎으로 주가 하락하면서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KRX금시장의 수수료가 골드뱅킹보다 저렴하고 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 현물이나 선물 시장과 비교해 오히려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KRX금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금지금 수량과 투자자 참여율도 증가 추세다.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입고한 금지금 누적 수량은 최근 700kg을 넘어섰다.

입고 금지금은 지난 10월 27일 500kg을 돌파하고 한 달여 만인 11월 24일 716kg을 기록했다. 이는 31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금지금 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증권사를 통한 위탁자의 KRX금시장 누적 참여계좌 수는 개설 초기 400개에 못 미치던 것이 8개월새 5배 넘게 급증했다.

누적 참여계좌 수는 지난 3월 391개에서 10월 지난 5월 1026개로 네자릿수를 첫 돌파하고서 이달 4일 2006개로 2000개를 넘어섰다.

개인 등 일반투자자의 KRX금시장 거래를 돕는 증권사는 지난 3월 8곳에서 9월 11곳으로 증가한 상태다.

국제 금가격 하락으로 향후 반등을 노린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됐다.

국제 금값은 달러화 강세의 여파로 지난해에만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시중에 유동성을 풀자 그 반작용으로 70%나 급등했던 지난 2008년 말부터 2011년 상반기 무렵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물사업자 참여 확대를 통해 국내 귀금속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투자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Tum1@

추강등 레이더' 서비스 개시 유안타증권은 8일 중국 주식 직접 투자자를 위한 '후강퉁 레이더(Radar)'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차트와 수급·실적 기반의 현격적인 종목 선정 알고리즘을 통해 유망 종목을 추천하고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준다. /유안타증권 제공

이광구 우리은행 내정자 인사·조직개편

부행장 등 12명 승진 7개 부서 감축

우리은행이 이광구 차기 행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임원인사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8일 우리은행은 조직역량 집중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와 성공적인 민영화 달성을 위해 부행장과 상무 등 12명의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새로 선임된 집행부행장은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 김종원(前 마케팅지원단 상무)와 글로벌사업본부장 손태승(前 자금시장사업단 상무), HR본부장 유점승(前 외환사업단 상무), 리스크관리본부장 김옥정(前 WM사업단 상무), 여신지원본부장 이동빈(前 기업금융단 상무) 등 5명이다.

상무 인사에서는 자금시장사업단 김재원(前 본점영업부 영업본부장)과 외환사업단 최정훈(前 송파영업본부장), 스마트금융사업단 조재현(前 서초영업본부장), 연금신탁사업단 김홍희(前 호남영업본부장), 마케팅지원단 박형민(前 남대문기업영업본부장), 기업금융단 정안호(前 기업금융부 영업본부장대우(심사역)), 고객정보보호단 정원진(前 부산서부영업본부장) 등 7명이 승진했다. 30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동건 수석부행장은 유임됐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이날 경영협의회를 열고 본부 부서를 현재보다 7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스마트금융사업단 내 전자뱅킹사업부는 스마트채널전략부와 통합되며 경영감사부는 검사실과 합쳐진다.

트레이딩부는 증권운용부와 통합된다. WM(자산관리)사업단 내 제휴상품부는 WM전략부와 합쳐 자산관리 부서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금융사업단 내에 핀테크(Fintech)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도 발맞출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9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 내정자를 차기 행장 후보로 공식 추천할 계획이다.

/채대원기자 ol va0265@

“기업 업무 클라우드시대 열린다”

한국MS ‘기업 디지털 노마드’ 선언
사람 중심으로 편의·보안 개선해야

#007 제임스 본드의 애마로 유명한 스포츠카 브랜드 '애스턴 마틴' 임직원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근무하지 않는다. 영업사원들은 자동차 이미지가 담긴 태블릿PC를 들고 홍보에 나서고, 경영지원 직군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각종 디바이스를 활용해 유연하게 근무한다. 임직원이 각기 현장에 흩어져 근무하지만 애스터 마틴의 24시간은 빈틈없이 흘러간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디바이스와 데이터들을 한곳에 모으고 분산시키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잘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기가 바뀌어도 자신이 작업하던 환경을 그대로 이어 받을 수 있다. 사람뿐 아니라 기업도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노마드'로 전환하는 셈이다. /한승희기자 unsee@metroseoul.co.kr

'클라우드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에 이어 지난 2월 마이크로소프트(MS) 세 번째 수장에 오른 사티아 나델라. 그는 올해 기업 슬로건을 '클라우드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로 정했다. 앞으로 가상 정보처리 시스템과 모바일이 기업 생태계를 좌우한다는 비전에서다.

한국MS는 8일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무 유연성을 강화하는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스위트(EMS)' 제품군 출시와 함께 우선 업무의 미래 전략을 밝혔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개인 모바일 기기가 업무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 나면서 이에 따른 편의성과 보안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8일 열린 한국MS 기자간담회에서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사업본부의 민경준 부장이 근무 유연성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MS 제공

민경준 한국MS 부장은 "클라우드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사무실에 있지 않아도, 컴퓨터 없이도 근무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면서 "하지만 기기를 바꾸면 소프트웨어를 다시 깔아야 하는 불편함과 늘은 해킹 위험성이 존재한다. 기업의 IT 경쟁력 개선을 위해 디바이스 환경을 '사용자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기업 보안은 분절적으로 이뤄졌다. 고객 정보, 문서 보안, PC 보안, 인증 보안이 따로 관리되어 정보 유출에 취약하고 서비스 사용에도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EMS 제품군이다.

EMS는 직원의 디바이스 사용 형태를 파편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누가 사용하느냐'를 중심으로 통합해 관리한다. 철저한 사용자 인증을 거쳐 디바이스가 바뀌어도 하던 작업을 그대로 연동시켜 보안과 업무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했다.

민 부장은 "기계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새로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은 이제 없어야 한다. 보안 시스템도 기존의 단절적 방식이 아닌 통합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산 철강재 작년비 36% 급증
13개월 연속 증가세… 연말 사상 최대 수입량 주목

올 들어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36%나 급증하면서 철강재 수입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8일 한국철강협회가 발표한 '11월 철강재 수입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은 1228만3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7%나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대규모였던 2008년 1431만t에 육박한 수준이어서 올 연말까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지 주목된다.

반면 일본산은 674만6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줄었다.

올해 11월까지 전체 누계 수입량은 2089만3000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5% 늘었다. 11월 한 달치만 보면 186만6000t으로 전달과 비교해 6.9% 감소했지만, 지난해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이중 중국산은 지난해보다 22.8% 증가해 수입 비중이 59.4%에 달했다.

철강재 수입단가도 계속 하락해 국내 철강업계를 압박했다. 대표적 수입품목인 보통강 열연강판의 지난달 평균 수입단가는 546 달러(약 57만3000원)로 지난해보다 6.3% 떨어지며 33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김준희기자 mjkim@

피카츄 보러 오세요 8일 서울 신도림 디큐브백화점에서 직원들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피카츄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디큐브백화점은 오는 31일까지 포켓몬코리아와 함께 대규모 '포켓몬 윈터 카니발'을 연다. /디큐브백화점 제공

내년 25만여 가구 집들이
올해보다 10% 감소 전망

2015년 전국적으로 25만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에 들어간다. 올해보다 9.6% 감소한 수준이다.

8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내년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총 386개 단지, 25만1202가구로 조사됐다. 올해(27만7921가구)보다 2만6719가구 줄어든 물량이다.

월별로는 12월이 3만1329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6월 2만8211가구, 10월 2만7056가구, 9월 2만6389가구 순이다.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은 달은 1월로 1만5748가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올해보다 2941가구 줄어든 154개 단지 10만2728가구가 입주한다. 경기도가 6만9259가구로 최다 물량을 자랑하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2만938가구, 1만3541가구다.

이 중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1만5935가구), 미사강변도시(5416가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들이가 계획됐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세곡2지구, 내곡지구, 가재울4구역, 왕십리1구역 등에서 입주에 들어간다.

지방5대광역시에서는 79개 단지, 5만499가구가 새로 주인을 맞이한다. 올해 118개 단지, 6만4160가구보다 1만3661가구 감소한 수준이다. ▲부산 1만6724가구 ▲대구 1만4009가구 ▲대전 4676가구 ▲광주 4885가구 ▲울산 1만205가구 등이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153개 단지, 10만703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혁신도시(전주완주, 광주전남)의 입주 감소 여파로 올해보다 1만117가구 감소했다.

다만 세종시는 올해 1만4681가구보다 1665가구가 증가한 1만6346가구가 집들이를 준비하고 있어 내년 전세시장도 약세가 예상된다. 또 경북과 충남도 각각 6700여 가구, 5700여 가구 늘어난 1만4165가구와 1만3681가구가 입주한다.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강남권 등 서울 입주물량 감소로 재건축 재개발 이주 등과 맞물리는 내년에도 전세난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분양시장만 뜨거운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등 재고주택시장을 살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

아이젠으로 눈길 미끄럼 예방하세요 8일 롯데마트가 서울역점, 잠실점 등 전국 90개 매장에서 눈길과 빙판길에서 미끄러짐을 예방해주는 아이젠 3종을 선보였다. 간단히 탈부착할 수 있는 '라이트 아이젠'이 9900원, 스테인리스 재질로 녹스는 것을 최소화시킨 '락아프 아이젠'과 '스포츠 550 아이젠'이 각각 3만8000원, 3만5000원이다. /연합뉴스

내 수능 점수로 어느 대학 갈 수 있나

정시모집 19일 스타트… 정원의 34.8% 12만7000여명 선발

201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경쟁이 19일 본격 점화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정시는 모집 인원이 소폭 줄어든 데다 '물수능' 논란까지 벌어져 그 어느 때보다 '눈치작전'이 극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정시모집에는 197개 대학에 참가해 총 모집인원의 34.8%인 12만7569명을 뽑을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55명 줄었으나 비중은 1.1%포인트 증가했다.

원서는 19~24일에 대학별로 4일 이상 접수한다. 140개교가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받는다.

전형 기간은 가군이 내년 1월 2일부터, 나군은 내년 1월 12일부터, 다군은 내년 1월 21일부터 진행된다.

올해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87.2%에 달하는 11만1211명이다. 지난해 9만1530명(71.3%)에서 대폭 늘었다. 나머지는 실기 위주(11.1%), 학부 종합(1.2%) 전형으로 선발한다.

군별 모집인원을 보면 가군이 139개 대학 5만259명, 나군은 136개 대학 4만9114명, 다군에 120개 대학 2만8156명이다.

정시에서는 모집군별로 대학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한 개 모집군에 2개교 이상 지원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단 산업대나 카이스트, 3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대학은 복수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대입 정시 배치 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

◆137개 전문대, 정시모집서 4만여명 선발

137개 전문대학이 201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4만52명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1차로 15일간(19일~2015년 1월 2일), 2차로 5일간(2015년 2월 10일~2월 14일) 실시된다.

1차 접수는 137개 대학이 모두 실시하지만, 2차 모집을 하지 않는 대학이 절반 이상이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전문대학 온라인 입학종보센터(http://ipsi.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준기자 kmlee@metroseoul.co.kr

부모도 바쁘다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진선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2015 정시지원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입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입시전략을 경청하며 대입을 앞둔 자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영역별 반영비중 꼼꼼히 확인해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국어B형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만점자가 크게 늘어난 '쉬운 수능'으로 분석되면서 수험생들은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정시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

입시 업체들은 올해 정시모집은 대학별 선발군의 이동, 200명 미만 모집 단위에서 분할 모집 금지, 의대 선발 인원 증가 등 작년과 달라진 점이 많아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과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역별 반영비중, 대학별 변환점수 확인

수험생은 사신의 수능 성적에서 어떤 영역이 우수하고, 취약한지 잘 분석해 가장 유리한 수능 반영 영역 조합을 찾아내 지망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4개 영역을 반영하는데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고 특정 영역에 가중치를 주는 경우가 있다. 반영 점수 지표 중에서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은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단순하게 표준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별로 백분위를 통한 자체 변환표준점수를 만들어 활용한다.

대학별로 발표하는 변환표준점수표를 확인하고 최종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모집군별 특성 파악, 3번의 기회 활용

정시모집에서는 가·나·다군으로 3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데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주로 가군과 나군에 집중돼 있어 가·나군 대학 중 1곳에는 합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올해는 같은 모집 단위를 분할 모집할 수 없어 일부 학과는 가군에서, 일부 학과는 나군에서 모집하는 방식으로 분할 모집하는데 이럴 경우 모집군에 따라 합격선이 달라진다.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경우가 수능 성적과 학생부를 합산해 선발하는 경우보다 수능 합격선이 높아진다.

다군은 모집 인원이 적어 경쟁률도 높고 합격선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올해는 쉬운 수능으로 인해 수험생 간 점수 차이가 작고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어려워 하향 안전지원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럴 때는 자신의 수능 영역별 성적을 분석해 무조건 하향지원하기보다는 3번의 복수지원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한번은 합격 위주로 안정 지원을 하고 한번은 성적에 맞춰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한번은 소신 지원을 하는 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

/조현정기자 hj

끝없는 공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2015 정시지원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입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전략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경영 528점, 서울지역 의대 524점"

입시업체 정시 합격선 전망

2015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하려면 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가 528점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하늘교육·대성학원·진학사·유웨이중앙교육 등 입시업체들은 지난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성적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예상 합격선을 8일 내놓았다.

우선 종로학원하늘교육과 진학사는 서울대 경영대학에 지원가능한 점수를 나란히 530점으로 예측했다. 대성학원은 2점 낮은 528점이 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웨이중앙교육이 제시한 지원가능 점수는 529점이다.

또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서울대 사회과학계열에 지원하려면 529점 이상이 돼야 할 것으로 봤다. 인문계열과 국어교육은 각각 528점으로 지원가능 점수를 추정했다.

대성학원은 서울대 사회과학계열과 국어교육과에 합격하려면 각각 527점과 526점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진학사는 서울대 사회과학계열 지원가능 점수로 529점을 제시했다.

자연계의 경우 서울대 의예과의 지원가능 점수로 526점이 필요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진학사는 529점, 유웨이중앙교육은 528점, 대성학원은 527점, 종로학원하늘교육은 526점을 각각 예상했다.

이들 업체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생명공학부의 지원가능 점수를 516~524점으로 예상했다.

◆연·고대 인기학과 520점 후반

연·고대 인기학과 합격선도 520점대 후반은 돼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연세대 경영 529점, 자유전공 527점, 영어영문 525점, 의예 525점, 치의예 524점으로 전망했다.

고려대의 추정 합격점수는 자유전공학부 526점, 정경대학 527점, 경영대학 526점, 의과대학 521점, 화공생명공학부 514점 등이다.

진학사는 고려대 의과대학을 527점으로 예상했다. 연세대의 경우 지원가능 점수로 경영 529점, 의예 528점을 전망했다. 대성학원은 고려대 경영대학 526점, 의과대학 524점, 연세대 의예과 526점 등으로 추정했다.

◆성균관대 의예 525점, 중앙대 의대 524점

서강대의 경우 경영학부 523점, 인문계 521점, 화공생명공학계 510점으로 합격 기준점을 제시했다. 성균관대에서 글로벌경영 등 인기학과에 지원하려면 525~526점은 기록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성학원은 서울지역 의대 지원가능 점수로 성균관대 의예 525점, 이화여대 523점을 각각 제시했다.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의과대학에 합격하려면 524점을 넘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유웨이중앙교육은 경희대 의예과는 524점, 한의예과는 521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수능성적 발표 이후 **대입 일정**

수시 / 정시

- 원서접수 12.19(금)~12.24(수)
- 전형기간 2015.1.2(금)~29(목) 가군(1.2~1.11) 나군(1.12~1.20) 다군(1.21~1.29)
- 추가모집 2015.2.16(월)~2.23(월)
- 합격자 발표 2.24(화) 21시까지
- 추가모집 등록마감 2.25(수)

2014년 12 | 2015년 1 | 2

- 합격자 발표 ~12.6(토)까지
- 합격자 등록 12.8(월)~10(수)까지
-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12.15(월) 21시까지
-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12.16(화)까지
- 합격자 발표 ~1.29(목)까지
- 합격자 등록 1.30(금)~2.3(화)
-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2.11(수) 21시까지
- 미등록충원 등록 ~2.12(목)까지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합뉴스

맞춤형 정시 진학상담 신청 받아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12일까지 서울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5 대입 정시 대비 진학상담' 신청을 받는다.

진학상담 희망자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http://sangdam.jinhak.or.kr)에 접속, 예약하면 권역별로 마련된 특별진학상담센터에서 1인당 40분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미달하는 경우 선착순 현장 접수도 한다.

이번 진학상담은 13일부터 16일까지 광운대·한양대·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명지대 등 4곳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서울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 100여 명이 인문·자연계열 특성과 전문대로 세분화해 수험생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수험생은 교육연구정보원이 개발한 정시 진학 자료와 서울 시내 고교에서 제공한 4만여 건의 전년도 대입 정시 합격·불합격 자료, 올해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개발된 진학상담 프로그램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 전형과 학과 정보, 정시 지원 전략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현정기자 jhj@

가·다군으로 신입생 399명 선발

삼육대(http://www.syu.ac.kr)는 2015학년도 정시모집에 가·다군 전형으로 총 399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며 추가로 수시 모집 미등록 인원도 함께 선발한다.

일반학과의 경우(신학과·예체능계열 학과 제외) 대학수학능력시험 100%를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생활체육학과는 수능 성적 70%, 실기 30%를 반영하며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컨텐츠학과, 음악학과는 학생부 20%, 실기 80%를 반영한다.

교차 지원은 허용되나 일반전형의 경우 건축학과, 동물생명자원학과, 보건관리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카메카트로닉스학과, 컴퓨터학부, 화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B형 응시자에게 수학 취득 점수의 10%를 수학영역 점수에 가산해준다.

이번 정시모집은 일반전형에서 면접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생활체육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컨텐츠학과의 실기고사 전형(가군)은 2015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다. 음악학과의 실기고사 전형(다군)은 2015년 1월 21일 실시된다.

원서는 가군과 다군 모두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진학어플라이(http://apply.jinhak.com)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받는다. 문의 (02)3399-3364~6

나·다군으로 나눠 단과대별 모집

동덕여자대학교(http://ipsi.dongduk.ac.kr) 2015학년도 정시모집은 단과대학별로 나군과 다군으로 나눠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9~24일 진행된다. 이번 정시모집 인원은 나·다군에서 정원 내 총 1001명이나 이는 수시모집 합격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이월하는 인원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나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최종 모집 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전형, 농어촌학생특별전형, 특성화고교특별전형, 기회균등특별전형, 서해5도 지역특별전형은 나군과 다군으로 분리 선발하고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다군에서 선발한다.

올해 정시모집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전년도와 달리 나군과 다군에서 인문·자연, 예체능계열의 신입생을 단과대학별로 분리해 모집한다는 점이다. 인문·자연계열의 전형 방법은 나군의 경우 학생부 30%와 수능 70%를 합산해 선발하고 다군은 수능을 100% 반영해 선발한다. 예체능계열은 학생부·수능 성적 이외에 실기점수를 반영하며 그 중 실기점수의 반영 비중이 가장 높다.

인문·자연계열은 수능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예체능계열은 수능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국어B형과 수학A형을 지정해 반영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지원자가 응시한 수능과목 유형에 따라 백분위 성적에 6~20%의 가산점이 부여되므로 유불리를 감안해 지원해야 한다. 문의 (02)940-4047~8

수능 백분위 반영…교차 지원 허용

서울여자대학교(http://admission.swu.ac.kr)의 정시모집은 인문사회계열은 나군에서, 자연계열은 다군에서 선발한다. 예체능계열은 나·다군으로 분할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19일부터 24일까지이며 모집 정원은 17일께 확인 가능하다.

정시모집은 계열에 따라 학생부 반영 여부, 수능반영영역 등의 전형 요소가 모두 다르므로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차 지원이 허용돼 인문계 학생은 자연계열 학과로, 자연계 학생은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나군의 인문사회계열은 수능(90%)과 학생부(10%)로 선발하며 수능 성적은 백분위를 반영한다. 수능은 국어(A/B), 영어를 각각 35%씩, 수학(A/B), 탐구 중 상위 1개 영역을 30% 반영해 총 3과목이 적용된다. 탐구영역(직업탐구영역 제외)은 2개 과목의 백분위 평균을 자동 반영한다.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영역의 1과목으로 대체 인정한다. 학생부는 교과 100%를 반영하며 국어, 영어, 사회교과 상위 등급 각 3과목(총 9과목)의 석차등급을 점수화한다.

다군의 자연계열은 수능(100%) 백분위만으로 선발한다. 수능은 수학(A/B), 영어가 각각 35%, 국어(A/B), 탐구 중 상위 1개 영역이 30%로 총 3과목이 반영된다. 필수 과목 중 수학B를 선택한 경우에는 1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탐구영역(직업탐구영역 제외)은 2개 과목의 백분위 평균을 자동 반영하며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영역의 1과목으로 대체 인정한다.

나군에 속한 현대미술과, 공예학과는 수능 40%, 실기 60%가 적용된다. 수능은 국어(A/B), 영어, 수학(A/B),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각 50%)의 백분위를 선택 반영한다. 수능에 반영되는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의 백분위 평균을 적용,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영역의 1과목으로 대체 인정된다. 직업탐구영역은 1개 과목의 성적만 반영하며 직업탐구영역 반영시 제2외국어/한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의 (02)970-5051~4

가군 1160명 선발…의예과 전액 장학금

이화여자대학교(http://enter.ewha.ac.kr)는 201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으로 116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에서 1140명(수능 위주 722명, 예체능 418명), 특기자전형에서 국제학부 20명, 학생부 위주인 사회통합전형(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에서 181명(정원외)을 선발한다.

전년도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대입 전형 간소화를 위해 일반전형에서 우선 선발 단계를 폐지해 의예과와 뇌·인지과학전공, 화학신소재공학부를 신설했다. 영어영문학전공은 인문과학부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선발하며 국제학부 입학생은 1학년 말에 국제학전공과 글로벌한국학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의예과(6명)와 뇌·인지과학전공(5명)에서는 인문 계열 학생도 선발한다. 건강과학대학(체육과학부 제외)에서도 인문 계열(36명)과 자연 계열(17명)을 분리 선발하므로 융합인재형 인문 계열 수험생들이 주요 지원 전략으로 참고하면 좋다.

전형별 반영 비율을 보면 일반전형 수능은 수능 90%, 학생부 10%를 반영한다. 예체능의 경우 음악학부는 학생부 20%, 수능 20%, 실기 60%, 무용과와 조형예술대학(의류학전공 제외), 체육과학부는 학생부 20%, 수능 40%, 실기 40%를 반영한다. 국제학부는 수시모집과 동일한 전형 방법(서류 70%, 영어면접 30%)으로 진행. 수시모집의 국제학부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담 없이 재도전의 기회로 노려볼 만하다. 19일부터 23일까지 정시모집 인터넷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한편 의예과 정시 신입생(자연 계열) 전원에게 6년 전액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2015학년도 신설된 뇌·인지과학전공 신입생 전원에게 융합인재장학금 혜택을 주고 화학신소재공학전공에도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제공된다. 문의 (02)3277-7000

기업융합법학과, 일하며 공부한다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기업융합법학과가 2015학년도 정시모집 '다'군 취업자전형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을 실시한다.

원서접수기간은 19~23일이다. 국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와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를 통해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두 전형 모두 수능없이 서류평가(학교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 반영비율 40%와 면접(전공적합성·인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반영비율 60%를 일괄합산해 선발한다.

정시 '다'군 취업자전형의 모집인원은 3명이다. 지원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현재 통산 3년 이상의 직장경력 또는 자영업제 운영경력이 있고 근무(영업)중인 자다. 전형은 수능없이 서류평가와 면접으로 선발한다.

정시 '다'군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이월해 선발한다.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전형은 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산업체에 먼저 취업하고 필요한 경력을 갖춰야만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성화고교(전문계고교)와 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이상의 재직 기간이 필요하다. 만약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이면 된다. 원서접수 시 반드시 재직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최종 모집인원은 18일 국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국민대 기업융합법학과는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중 야간, 토요일 수업과 사이버 강의를 개설한 것이 장점이다. 주간 법학부(136학점)와 비교해 낮은 졸업이수학점(120학점)으로 쉽게 법학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법학을 전문계고졸 재직자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은 국민대가 유일하다.

입학 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캠프),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다양한 장학제도도 마련돼 있다.

문의 (02)910-4500

가·나군 인문·자연 수능100% 전형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

덕성여자대학교(www.duksung.ac.kr) 2015학년도 정시모집은 '가'군과 '나'군에서 수능100%전형과 예체능(실기)전형 두 가지로 간소화해 진행된다. 특히 올해 정시모집부터는 실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가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게 특징이다.

모집인원은 '가'군에서 일반학생 255명, '나'군에서 일반학생 417명 등 모두 672명이다. 수능100%전형은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미디어대학 전 학과와 의상디자인학과에서 실시한다.

모든 전형에서 수능은 백분위 점수를 활용한다. 각 계열마다 반영하는 수능반영 영역은 인문계열은 필수 반영영역으로 국어A/B와 영어를 각 40%씩 반영하고 수학A/B 또는 사탐/과탐 가운데 1개를 택해 20%를 반영한다. 자연계열은 필수 반영영역으로 수학A/B와 영어를 각각 40%씩 반영하고 국어A/B 또는 사탐/과탐 가운데 1개를 택해 20%를 본다. 예체능(실기)전형 학과는 수능 필수지정 영역 없이 국어A/B, 영어, 수학A/B, 사탐/과탐 등 4개 영역 중 성적이 가장 높은 영역 2개를 택해 각각 50%씩 반영한다.

특히 인문계열 지원자가 국어B를 선택하거나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B를 선택했을 경우 취득한 국어B와 수학B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예체능(실기)전형은 생활체육학과, 동양화과, 서양화과, 실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에서 진행한다.

예체능(실기)전형 모집단위 중 생활체육학과와 서양화과는 수능과 실기고사에 더해 학생부 교과성적을 각각 30%와 20% 반영한다. 동양화과, 실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는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 없이 수능성적과 실기고사만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동양화과는 실기 60%와 수능 40%를 반영하며 실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는 수능 60%와 실기 40%를 본다.

덕성여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19~24일이다. 원서접수는 100% 인터넷으로만 진행되며 최초 합격자는 2015년 1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2)901-8187~8190

신·편입생 총 14만여 명 뽑는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국립 한국방송통신대(방송대)가 내년 1월 9일까지 2015학년도 신·편입생을 뽑는다.

모집인원은 인문·사회·자연·교육과학대학의 22개학과와 지난해 신설된 금융·서비스학부, 첨단공학부를 포함해 총 24개학과·학부에서 신입생 6만3739명, 편입생 7만7229명 등 총 14만 968명이다.

방송대 입시전형에는 별도의 시험이 없으며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검정고시, 2015 수능시험 성적 등 포함), 편입생은 출신대학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 지난해 신설된 금융·서비스학부와 첨단공학부는 산업체 재직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학부와 첨단공학부 재직자 전형의 경우 타 대학과 달리 3년 근무 경력 없이 고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할 수 있어 20대 초반의 고졸 신입사원들의 선취업 후진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금융·서비스학부와 첨단공학부에서 2학년 편입생 모집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면서 취업 후 실무 역량을 쌓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입학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등록금은 한 학기 인문·사회과학대학 35만원선, 자연·교육과학대학 37만원선, 금융·서비스학부와 첨단공학부는 63만원선으로 일반대학 대비 10분의 1, 사이버대학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교육보호대상자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연간 8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 누구라도 학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윤병준 학생처장은 "방송대는 입학생의 80%가 지인의 추천으로 입학한다고 할 만큼 동문·재학생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며 "43년간 축적해온 원격교육의 노하우와 검증된 강의로 수준 높은 열린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대 홈페이지(www.knou.ac.kr)를 통해 지원서 작성과 제출이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서툴다면 방문접수(2015년 1월 2~9일)를 통해 도움은 받을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2015년 1월 29일이다. 문의 1577-2853(인문·사회·자연·교육), 1661-3090(프라임칼리지)

다군 신설 공예·산업디자인과 모집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성신여대(http://ipsi.sungshin.ac.kr)는 201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 840명, '나'군 158명, '다'군 115명 등 총 1113명을 모집한다.

'가'군 일반학생 전형의 일반계학과는 수능 100%를, 사범계열은 수능 90%와 교직적 인성 구술면접 10%를 반영한다. 2013학년도에 신설된 융합보안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는 수능 100%를 반영한다. '나'군 일반학생 전형의 일반계학과(부)는 수능 100%를 반영한다. 2013학년도에 신설된 글로벌의과학과는 수능 100%를 반영한다.

2015학년도부터 '다'군을 신설해 공예과, 산업디자인과에서 학생을 선발하며 수능 50%, 실기고사 50%를 반영한다.

수능지정영역(A/B)은 지원자의 시험과목 응시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수능성적은 백분위 점수를 활용한다.

'가'군 인문계열 학과(부)는 국어 40%, 영어 40%, 수학 10%, 탐구(2과목) 10%를 반영하고 경제·경영·융합보안학과는 수학 40%, 영어 40%, 국어 10%, 탐구(2과목) 10%를 반영한다.

간호학과는 계열에 따라 인문계는 수학, 영어, 국어또는사회탐구(2과목)/자연계는 수학, 영어, 과학탐구(2과목)를 반영하며 글로벌의과학과는 수학, 영어, 과학탐구(2과목)가 반영된다.

한편 '나'군 자연계열 학과(부)는 2014학년도와 동일하게 2+1체계(필수 2과목+선택 1과목)를 적용한다. 탐구영역은 2과목 백분위 점수 평균(직탐은 1과목 백분위 점수)을 반영하며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탐구 1과목으로 인정한다.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하며(간호(자연), 글로벌의과학과 제외) '가'군과 '나'군 학과에 따라 3+1체계(필수 3과목, 선택 1과목)와 2+1체계(필수 2과목, 선택 1과목)로 구분되므로 본인 수능성적의 강점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02)920-2000, 2001

대표 방한제품 어떤게…

기능성 내의·모자·코트 등으로 '훈훈'하게

한파가 기승을 부리자 체온을 지켜줄 기능성 패션 아이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내부로부터 몸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외부의 찬바람을 막아 주는 기능으로 효율적인 체온 관리가 가능하다.

기능성 발열 내의는 겨울철 대표 방한 제품이다. 과거에는 옷의 실루엣을 망치고 불편한 착용감으로 젊은 세대에게 외면받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얇은 두께에 발열·흡습속건 등의 기능성을 더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BYC가 선보인 보디히트는 솔라 터치 원사를 적용한 발열 내의다. 솔라 터치 원사는 대기 중의 적외선을 열에너지로 전환시켜 발열하는 소재로 반영구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피부와 섬유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해 온기를 유지하는 마이크로 아크릴 섬유와 부드러운 감촉·흡습 효과가 장점인 레이온 소재를 사용해 따뜻하면서도 쾌적하다.

추운 날씨에도 야외 라운딩을 포기하지 못하는 골퍼들에게는 모자가 유용하다.

와이드앵글의 '포레스트 니트 모자'와 '포레스트 헌팅캡'은 보온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나무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필드에서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토끼털 방울이 포인트 된 '포레스트 니트 모자'는 여성스러움과 귀여움을 동시에 제공하며 부드러운 울 소재라 포근하다.

온도 조절이 가능한 아우터도 눈길을 끈다.

롯데백화점과 아이리버·파슨스가 함께 출시한 '에발란치'는 신소재인 단소발열체를 활용한 스마트 발열 웨어다.

제품에 부착된 1.5㎜의 발열패드가 1분 안에 온도를 50도까지 끌어올려 훈훈하게 데워준다. 컨트롤러로는 배터리 잔량이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토종 쇼핑몰이 뭉친 이유는?

12일 하루 할인·쿠폰 발행

12일 단 하루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가 동시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연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참여 업체는 11번가·현대H몰·롯데닷컴·엘롯데·CJ몰·AK몰·갤러리아몰·롯데슈퍼·하이마트쇼핑몰이다. 이날 상품 할인을 비롯해 쿠폰 등을 지급한다.

행사 기간 11번가는 국내외 인기 상품을 총망라했다.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0% 타임 쿠폰(최대 1만원 할인)을 매시 정각에 3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타임특가' 행사도 마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 정각 총 10회에 걸쳐 1개 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카드사(신한카드·현대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50% 할인 쿠폰으로 인기 신상 휴대폰을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다른 업계와 손잡고 동시에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며 "블랙프라이데이가 해외 행사이다 보니 국내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혜택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롯데닷컴은 12일 0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100여 개 이상의 인기 상품을 최대 72%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지난 달에서는 12일부터 14일까지 롯데포인트 결제할 때 50% 포인트 페이백을 해주는 행사를 함께 실시한다.

갤러리아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정시마다 선착순 120명, 총 1200명에게 2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50% 쿠폰을 준다. MD가 엄선한 백화점 남녀 인기 아우터 상품을 특가로 선보인다.

/김수정기자 [illegible]

커피에 '창조의 미학'을 담다

취향 맞춘 이색 제품 내놔 인기

커피전문점 업계가 높아진 소비자의 커피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커피에 기발한 상상력을 더하고 있다. 커피에 홍차를 섞거나 소금, 치즈 등 독특한 재료를 혼합한 개성 넘치는 이색 커피를 선보이고 있는 것. 커피에 어떤 재료를 혼합하느냐에 따라 커피의 맛과 향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존에 선보이지 않았던 색다른 재료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드롭탑은 겨울 시즌을 맞아 홍차 커피를 선보이고 있다. '귀족의 품격'이라는 콘셉트로 탄생한 이 메뉴는 영국에서 즐겨 마시는 홍차와 커피를 블렌딩해 드롭탑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홍차를 우유와 혼합한 티(Tea) 라테 음료는 다수의 커피전문점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적인 메뉴지만 커피와 홍차를 함께 섞은 에스프레소 커피는 흔치 않은 메뉴다.

엔제리너스커피는 커피에 소금을 더해 달콤한 맛을 강화한 '솔티 카라멜 마끼아또'(사진)를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원두와 소금이 만나 풍부한 커피 향과 짭짤한 소금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색 커피다. 달콤한 캐러멜에 소금이 더해져 카라멜 풍미가 진한 것이 특징이다. 메뉴에 첨가되는 소금은 일반 정제염보다 미네랄이 풍부한 국내산 신안 천일염을 사용했다.

할리스는 지난 9월부터 커피와 치즈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리스트레또 크림치즈 라떼'를 선보이고 있다. 진한 리스트레또 추출 커피에 마스카포니 크림치즈를 더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커피와 치즈가 어우러져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의 독특한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카페 마노핀은 지난 19일 스페인·이태리·멕시코를 대표하는 커피로 '비니 시니 몬라떼', '카페 크림라떼', '카페 드 올라' 등 3종을 내놨다. 각기 다른 풍미로 이들 나라의 대표 커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커피전문점 '더카페'에서는 지난 7월 에스프레소를 보다 진하게 뽑은 리스트레또 2샷을 넣어 더 진하고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바닐라 프레스지노'와 오레오 쿠키를 휘핑크림에 얹은 '오레오 프레스지노'를 함께 선보였다.

/정영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벤트 CJ푸드빌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에서 '백설 크림 파스타 소스와 함께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눈처럼 하얀 크림 파스타 소스가 식탁 위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선사하기를 기원하는 이번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아이폰6 화이트, CJ외식상품권, 뮤지컬 티켓, 영화 예매권, 스키장 리프트권 등을 증정한다. /손진영기자 [illegible]

강강술래 한파에 곰탕 매출 70% 증가

21일까지 40% 파격 할인행사 진행

한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의 12월 첫째 주 한우사골곰탕 매출이 전주에 비해 70% 가까이 뛰어오르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데다 연말 잦은 회식과 술자리로 몸의 저항능력이 더욱 떨어져 기력보충은 물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곰탕을 찾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측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강강술래는 오는 2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sullaemall.com)과 전화주문(080-725-9292)을 통해 곰탕 대용량 박스(500㎖×6팩·18인분)는 3만8300원, 소용량 박스(350㎖×10팩·10인분) 3만78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강강술래 곰탕은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다.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먹을 수 있어 조리도 매우 간편하다.

또 21일까지 홈페이지 문화 공감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조로' 공연 티켓도 증정한다.

'조로'는 리부트(시리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 작품으로 양요섭·키·손나은·서지영 등 실력파 배우들이 화려한 무대와 흥겨운 선율, 스릴 넘치는 검술과 스턴트 액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한편 강강술래는 온라인마케팅과 상품 기획, 홈페이지 오픈마켓 관리 등을 담당할 온라인 쇼핑몰 팀장을 공개 채용한다.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jklfds24@sullae.com)로 접수하면 된다.

/정영일기자

제약사 리베이트, 그 끝은 어디인가?

고질병 동화약품 적발 파문…변종 수법 막을 근본 대책 필요

Issue&View

끝없는 리베이트 전쟁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최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이 동화약품 리베이트를 적발했다. 이 사건은 정부의 규제와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가 뿌리 뽑히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약업계=리베이트?

지난 7일 동화약품 임원과 이 회사의 광고대행사 직원들이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이는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적발된 사상 최대 규모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로 매년 리베이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료계와 갈등 국면을 맞기도 했으며 지난해 10월 덜미를 잡힌 대웅제약의 임원은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올해는 CJ&G제약과 태평양제약 등이 리베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해외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제품을 재소독한 중고 MRI와 CT를 국내에 불법 유통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활개치는 변종 리베이트

리베이트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이유는 아직도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리베이트를 주고 의사가 자신의 회사 약을 처방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쉽게 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가 리베이트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강력한 규제에 들어갔지만 이런 조치는 변종 리베이트만 키워왔다.

변종 리베이트의 대표적인 예는 동화약품이 이용한 CSO라는 대행업체를 통한 방식과 '기프트카드 깡'이다. 그중 기프트카드깡은 영업사원들이 개인이 지급받은 법인카드로 일정 금액의 기프트카드를 구입해 현금으로 교환한 후 이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이 직원은 모아진 돈을 리베이트에 이용한다.

또 친분이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음식값을 카드로 지불한 후 음식값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있고 자동차 등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세미나 명목으로 회식과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리베이트와의 전쟁 준비하는 정부

변종 리베이트가 생기고 리베이트 적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보다 강력한 압박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국세청이 나섰다. 국세청은 국내 제약사 100여 곳에 4년간 구매한 상품권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기프트카드와 마찬가지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리베이트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동화약품 리베이트 적발 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사 1900여 명과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사전처분 통지서도 발송했다. 업계에서는 동화약품 적발 시기와 통지서 발송이 맞물렸고 복지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점 등으로 리베이트 규제 강화를 전망하고 있다.

동화약품을 적발한 검찰도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너무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근본적인 대책 요구하는 제약업계

하지만 제약업계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리베이트와 관련된 주체는 의사와 제약사, 그리고 정부다. 리베이트 문제를 제약사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의사를 직접 만나는 영업사원이 이제는 리베이트보다는 약에 대한 정보 교유, 학술활동 지원 등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보도될 때마다 제약사가 표적이 된다. 하지만 리베이트는 의사와 제약사 사이의 잘못된 관행으로 관련된 주체들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피력했다.

배 나오면 척추전방전위증?

다른 질환과 비슷해 오해하기 쉬워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한다. 하지만 중년들의 허리 통증은 이들과 함께 3대 척추 질환 중 하나인 척추전방전위증일 가능성이 있다.

다소 생소한 이 질환은 척추 뼈 위 아래가 어긋나면서 변형과 통증이 일어나게 된다. 오래 걸을수록 고통이 커지고 앉았다 일어설 때, 혹은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심해진다.

또 다리까지 통증이 나타나 허리 디스크 등 다른 척추 질환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위쪽 뼈가 앞으로 밀려 나와 비만이 아니더라도 배가 나와 보일 수 있으며 아래쪽 뼈가 뒤로 밀려 나갈 경우에는 엉덩이가 뒤로 빠져 오리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이 질환은 노화가 시작되는 40대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40대부터는 남녀 모두 척추와 관절 주변 인대가 신축성을 잃는데 이 때문에 척추를 지지하는 힘이 약해지고 척추 불안정성이 증가돼 척추전방전위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어 더욱 위험하며 폐경기를 지나면서 호르몬 변화를 보이는 50~60대 여성들의 유병률이 3~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승철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장은 "척추전방전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허리에 자극을 주는 동작을 자제하고 운동으로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 갱년기 후의 여성이라면 일상생활이나 가사노동 시 허리를 굽히는 자세와 오래 서 있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환자 위한 의약품의 진화

제형 변화 등 편의성 높이고 복용 돕는 제품 인기

최근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건강'이다.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이 대세로 자리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 외에도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형 변화, 올바른 복용법 전달 등 편의성을 높이고 복용을 돕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의약품의 이런 진화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감기약에서 먼저 나타났다.

한국다케다제약은 빠르게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면서 긴 지속 효과를 보이는 코감기약 '화이투벤 나잘스프레이'를 출시했다. 코감기는 물론 알레르기성 비염과 부비동염에 의한 코막힘에 효과가 있는 분무 타입의 제품이다. 코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해 졸음 등 전신적인 부작용이 적으며 특허를 받은 특수용기에서 약물이 안개처럼 부드럽게 분사돼 불편감도 적다.

한국노바티스는 따뜻한 물에 제품을 다시 차(茶) 형태로 복용할 수 있는 종합감기약 '테라플루'를 공급하고 있다. 액상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수분을 보충할 수 있으며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환자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데이 타임'과 '나이트 타임' 두 가지 타입으로 제품이 구성돼 있다.

한미약품은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의 정제 크기를 축소했다. 고혈압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 향상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회사는 고혈압 치료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먼디파마 역시 의약품 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습윤환경 조성을 통해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생기면서 제네릭과 함께 습윤밴드 '메디폼'에 이어 '메타폼'을 최근 출시했다. 메타폼은 메디폼과 같은 폼드레싱제에 소독을 돕는 포비돈 요오드를 함유한 습윤드레싱제다. 게다가 한국먼디파마는 천식 환자들의 올바른 흡입기 사용을 통해 천식 증상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흡입기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음성 안내장치를 제공하는 '팔로우 미(follow me)'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는 자사의 천식 치료제 '플루티폼'의 사용법을 안내하는 장치로 세계천식기구의 최신 치료지침이 반영된 제품이다.

아울러 한국존슨앤드존슨은 '타이레놀 500㎎'과 '타이레놀 이알'을 시작으로 타이레놀 7종의 포장을 모두 리뉴얼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약 복용법을 알리기 위해 '아는 것이 약입니다'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회사는 타이레놀 출시 60주년인 2015년을 맞아 포장에서부터 용량·용법을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약 복용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타이레놀 500㎎의 새 포장은 함량 표기 글씨가 기존보다 훨씬 커지며 타이레놀의 서방형 진통제인 타이레놀 이알은 그림으로 제품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큰 산' 같은 '빅매치'로 또다른 성장 맛봤죠"

가수에서 배우로 도전장 **보아**

'메이크 유어 무브' '연애를 기대해'로 진지하게 연기 생각

"버겁고 과분한 역할"…스스로를 내려놓고 캐릭터 몰입해

내년 가수 데뷔 15년…"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 중"

'가수는 연기를 못한다'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다. 그럼에도 데뷔 14년차 가수가 배우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이다. 보아(28)가 연기에 도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던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배우 보아의 첫 출발을 알린 영화 '메이크 유어 무브'는 연기보다 춤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었다. 가수 보아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느낌이었다.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방송된 드라마 '연애를 기대해'였다. 보아 또한 이 두 작품을 통해 연기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연기 제안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있었어요. 다만 섣불리 연기를 시작하지 못한 건 바쁘기도 했지만 제가 연기에 진지하지 못해서였어요. 이슈를 위한 캐스팅 제안도 있었고요. 연기를 진지하게 생각한 것은 '메이크 유어 무브'를 마친 뒤였어요. 그래서 '연애를 기대해'도 오디션을 거쳐 출연하게 됐고요."

지난달 26일 개봉한 영화 '빅매치'(감독 최호)는 보아에게 배우로서 제대로 된 신고식을 치르게 한 작품이다. 정체불명의 악당에게 납치된 형을 구하기 위해 도심을 무대로 미션을 펼치게 되는 파이터 익호의 이야기를 그린 오락액션 영화다. 보아는 악당의 지시에 따라 익호를 미션으로 인도하는 미스터리한 여인 수경을 연기했다.

보아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수경을 나 아닌 누가 할 수 있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여성스러움과는 거리가 먼데다 비밀까지 지닌 수경은 여배우라면 누구나 탐이 날 캐릭터다. 무거운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거친 액션까지 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버겁고 과분한 역할"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럼에도 "잘 해낸다면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보아로 하여금 작품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영화 속에서 보아는 화장도 거의 없는 수수한 얼굴로 다온다. 코에 난 상처 그리고 작은 키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화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아픔과 상처를 지닌 수경의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설정이다. 가수로 무대 위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홀로 받던 보아를 떠올린다면 '빅매치'의 수경은 조금 낯설다. 작품을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연기에 대한 보아의 진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키가 작게 보이는 것도 신경 안 썼고요. 화면에 나오는 건 감독님을 철저하게 믿고 갔어요. 저는 수경의 캐릭터만 잘 잡고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미스터리로 가득한 수경은 파무가내지만 길 잘 보르는 익호와 팔짜하면서 서서히 그를 믿고 의지한다. 보아가 가장 신경 쓴 것은 수경이 같은 운동선수 출신인 익호에게 공감하면서 변해가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수경이 지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그런 감정 변화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기를 바랐다.

다만 수경의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이 편집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얼굴이 밟힐 정도로 맞는 신도 힘들게 촬영했지만 영화에는 담기지 못했다. 배우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아쉬움이다. 그 대신 얻은 것은 협동 작업의 경험이다.

"'빅매치'는 '큰 산'이었어요. 캐릭터부터 큰 산이었으니까요. 그만큼 감정 표현도 액션 연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늘 혼자인 가수와 달리 영화는 협력 작업이라는 점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경력을 가진 분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고요."

무엇이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빅매치'에서 보여준 보아의 연기도 분명히 아쉬운 구석이 있다. 중요한 것은 보아 스스로도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연기로 호되게 신고식을 치렀다"며 "다음에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부족한 점을 채워서 연기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힘들게 첫 발을 내디딘 배우의 길을 쉽게 포기할 생각은 없다. 그의 꿈은 욕심 내지 않고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2015년은 보아에게 특별한 한 해다. 가수로 데뷔한지 15년이 되기 때문이다. 보아는 "15주년이지만 마음은 똑같다"며 "몇 주년이라는 의미 부여보다는 '보아'라는 연예인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껏 그래왔듯 보아는 가수로서도 배우로서도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김민규(라운드테이블) 디자인/김아람

SCREEN

HUGH JACKMAN · RUSSELL CROWE · ANNE HATHAWAY · AMANDA SEYFRIED · EDDIE REDMAYNE · with HELENA BONHAM CARTER · and SACHA BARON COHEN

SCREEN 크리스마스 특집 영화

레미제라블

tcast

12월 24일 [수] 밤 11시 TV최초

윤상, 팬 사로잡을 '男男' 듀엣

인피니트 성규·다빈크·팀과 '더 듀엣' 발표

가수 윤상이 남자 가수들과 특별한 호흡을 맞췄다.

윤상의 소속사 오드아이앤씨는 오는 11일 인피니트 성규, 다빈크, 팀이 객원 보컬로 참여한 윤상의 새 미니앨범 '더 듀엣 파트1'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남녀 가수의 컬래버레이션 홍수 속에서 '더 듀엣'은 윤상이 오직 남자 가수들과 호흡을 맞춘 곡들로 채워져 음악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앨범에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노래 '왈츠'를 포함해 'RE: 나에게', '그 겨울로부터'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RE: 나에게'는 '현재의 나'인 윤상이 '과거의 나'인 성규에게 보내는 편지를 노래했다. '과거의 나'가 겪었던 실패들이 세월이 흘러 '현재의 나'에게 매우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다.

관계자는 "윤상이 성규의 곡 해석 능력과 보컬리스트로서의 역량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며 "함께 녹음을 진행하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고 전했다.

팀은 윤상이 만든 '너를 사랑합니다'의 인연으로 '그 겨울로부터'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윤상과 팀의 따뜻한 목소리가 절묘한 하모니를 이룬 발라드 곡이다.

앞서 공개된 '왈츠'는 윤상이 프로듀서, 단비스의 멤버 다빈크가 참여한 곡으로 리듬감 있는 전개와 색소폰 연주가 특징이다. 윤상이 21년 만에 직접 작사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한편 윤상은 오는 12~14일 사흘 동안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단독 콘서트 '겨울밤의 풍경'을 개최한다. /김지민기자

8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엠넷 '노머시' 제작발표회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연습생과 제작진이 참석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제공

"살아남지 못하면 떠날 각오해야"

엠넷, 스타쉽과 힙합 서바이벌 '노머시' 개최

아이돌 그룹 데뷔를 위한 또 하나의 잔혹 서바이벌이 시작된다.

엠넷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만든 서바이벌 프로그램 '노머시(NO MERCY)'가 10일 첫 방송을 앞두고 8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데뷔 전쟁을 치르게 될 스타쉽 연습생 12명(기현·원호·주헌·형원·셔누·석원·상견·민균·유수·민혁·윤호·규진)과 이들의 멘토를 담당할 케이윌, 씨스타 효린·소유, 정기고를 비롯해 제작을 맡은 최승준 CP와 유일한 PD가 참석했다.

신인 힙합 그룹의 최종 멤버가 되기 위해 경쟁하게 될 이들은 라이머·산이·매드클라운·기리보이·천재노창 등의 힙합 선배들과 '콜라보 미션'을 통해 실력을 겨루게 된다. 이들은 매 무대마다 평가를 받고 1등부터 12등까지 순위가 매겨지며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게 된다.

최 CP는 "순위의 가시화가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경쟁의 잔혹함이 프로그램에 녹아 있다. 음원 파워가 있는 스타쉽과 함께하며 경쟁을 펼친 이들이 정식 데뷔 전부터 음원을 통해 음악적 재능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도 차별화된 점"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진과 참가자들의 각오는 대단하다. '노머시'에서 살아 남지 못한다면 가요계 퇴출도 각오해야 한다는 강수를 뒀다. 유 PD는 "이들은 여러 번의 데뷔 미션을 선보이게 된다. 개인전, 팀 미션, 유닛 미션 등 매번 무대는 그날 그날 심사위원들에 의해 평가된다"며 "최종적으로 살아 남을 인원은 정확히 모른다. 절반 정도는 탈락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한다. 실력 없는 연습생은 비전이 없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냉혹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은 같은 소속사 선배인 케이윌과 효린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힙합 뮤지션들도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케이윌은 "1년을 본 친구부터 7년 넘게 본 친구도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더 잔인하다"고 평가했다.

효린 역시 "이 자리가 솔직히 부담스럽다. 쓴소리도 많이 했다. 지적을 받고 냉정한 평가를 받는다면 실력이 늘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연습생들의 각오도 남달랐다. 국내 힙합신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기현(보컬)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롤모델은 산이"라고 답했다. 주헌(랩)은 "랩도 중요하지만 노래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 랩, 노래, 프로듀싱 능력 모두 잘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롤모델로 타이거JK를 꼽았다. /석희성기자 kakc0804@metroseoul.co.kr

'토이의 남자' 공명 후속 MV 출연

'세 사람' 이어 '리셋' 주인공 맡아

배우 그룹 서프라이즈의 공명(사진)이 토이(가수 유희열의 원맨 프로젝트)의 정규 7집 후속곡 '리셋' 뮤직비디오 주인공이 됐다. 같은 앨범의 타이틀 곡 '세 사람' 뮤직비디오에 이어 두 번째 출연이다.

'리셋' 뮤직비디오는 유연석·공명·김유미가 출연해 화제가 됐던 '세 사람' 뮤직비디오의 속편이다. '세 사람' 뮤직비디오가 세 남녀의 엇갈린 사랑과 우정을 담았다면 '리셋'은 김유미와 결혼한 공명이 사회 초년생이 돼 김유미와 사랑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공명은 '세 사람' 뮤직비디오와 마찬가지로 '리셋' 뮤직비디오에서도 특유의 선한 매력과 안정된 연기력으로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그는 "평소 토이 노래를 좋아해서 많이 들었다.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돼 영광"이라며 "촬영 내내 많이 가르쳐주시고 멋진 영상을 만들어 준 감독과 스태프에게 고맙다. 특히 제주도에서 함께 촬영한 유연석과 김유미도 감사하다"고 연달아 토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된 소감을 전했다.

공명은 지난해 9월 배우 그룹 서프라이즈의 멤버로서 드라마 '방과 후 복불복'을 통해 데뷔했다. 이후 영화 '어떤 시선', '도희야',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에서 활약했다. 최근 중국·미국에 동시 공개된 '방과 후 복불복 시즌2'에서 애교 있는 캐릭터로 해외 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편 공명이 속한 서프라이즈는 지난달 첫 번째 싱글 '서프라이즈 퍼스트 싱글 프롬 마이 뮤즈'를 발매했다. 오는 28일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태국·홍콩 등 아시아 6개국 투어를 할 예정이다. /김숙경기자

춤·노래·바이올린까지…'클래식 아이돌' 눈길

슈퍼주니어-M 헨리·비아이지 벤지, 미국 음대 출신
tvN '언제나 칸타레'서 금난새 지도 받아 활약 예고

노래와 춤은 물론 클래식 악기 연주 능력까지 갖춘 꽃미남 아이돌들이 등장했다.

엉뚱한 매력으로 예능 블루칩으로 떠오른 슈퍼주니어-M 헨리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는 '바이올린'이다. 미국 버클리 음대 출신인 헨리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보여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MBC에브리원 '주간아이돌'에서는 바이올린을 활이 아닌 우쿨렐레처럼 손으로 켜며 제이슨 므라즈의 '아임 유어스'를 불러 MC 정형돈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헨리가 가진 끼를 뽐내는 자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월 솔로곡 '판타스틱'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전면에 앞세웠다. 헨리는 '판타스틱' 뮤직비디오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화려한 발동작 안무를 함께 소화했다.

'아이돌 바이올리니스트' 헨리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이가 있다. 바로 비아이지(B.I.G)의 벤지다. 벤지는 지난 5일 tvN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레'(이하 '언제나 칸타레')에 헨리와 함께 출연했다. 그는 이날 지휘자 금난새 앞에서 출중한 바이올린 연주 실력을 뽐냈고 당당히 '언제나 칸타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합류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네 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했다"며 "클리블랜드 음대에 진학했지만 가수의 꿈을 위해 바이올린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이에 금난새는 "(바이올린에) 뛰어난 재능이 있으니 지금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하길 바란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지민기자

예능 시청률 효자 '체험 삶의 현장'

'무한도전' '인간의 조건' 극한알바·금남의 직업 체험
'위로'와 '직장인' 키워드로 노동의 가치 전해 공감

예능 프로그램이 노동 현장을 조명한다. 지난 주말 MBC '무한도전'은 '극한알바' 편, KBS2 '인간의 조건'은 '금남의 직업 체험' 편을 통해 노동의 현장을 전달했다.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일반 사람들은 저마다 "고되지만 보람차다"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서로를 격려해 진잔한 감동을 주었다.

지난 6일 방송된 '무한도전'의 '극한알바' 편에서 유재석·차승원은 탄광 막장에서 석탄을 채굴했고 박명수는 63빌딩 유리창을 닦았다. 정준하는 홈쇼핑 전화상담원으로 활약했고 정형돈과 하하는 각각 굴 까기와 택배 상하차 작업을 했다.

많은 분야에서 8시간 동안 일을 하며 육체 노동의 피로부터 감정 노동의 고단함까지 경험한 멤버들은 노동자에게 경의를 표했다. 특히 텔레마케터로 일한 정준하는 고객의 "고맙습니다"라는 말에 큰 힘이 됐다며 감동했다. "택배는 (일) 늦게 와도 돼"라는 하하의 소감, "막장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막장이라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유재석의 말은 편리한 생활을 위해 뒤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했다.

같은 날 방송된 '인간의 조건'의 '금남의 직업 체험' 편은 여성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적응한 여섯 남자의 모습을 방송했다. 김준호는 KBS 환경 미화원, 정태호는 유치원 교사, 김준현은 요구르트 아저씨, 개코는 속옷 디자이너, 김기리는 헤어 메이크업 디자이너, 조우종은 그룹 AOA 스타일리스트를 경험했다.

방송은 곡소리와 숨소리, 진땀으로 가득했다. 멤버들은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출근했고 때가 되면 밥을 먹었다. 김준호는 "같은 일이 반복된다. 또 쓸고 또 닦는다"며 "KBS 개그맨이지만 KBS 미화원들은 우렁각시였다. 대단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직장 선배를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선배'들은 서로의 직업적 고충과 보람을 이야기하며 정을 쌓았다.

방송의 한 관계자는 "드라마 '미생' 열풍으로 직장인, 위로 같은 키워드가 주목받는다"며 "'무한도전'과 '인간의 조건'은 시청자의 일상을 주제로 노동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방송을 통해 누군가는 위로받았고 누군가는 반성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효진기자

칸영화제 화제작 풍성한 극장가

심사위원상 수상 '마미' 등 4편 개봉

극장가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해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한국 메이저 배급사와 할리우드가 준비한 대작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칸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주목 받은 화제작들이 가세해 올 겨울 극장가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오는 18일에는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마미'(사진)가 개봉한다. '하트비트' '로렌스 애니웨이' '탐엣더팜' 등의 영화로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석권한 자비에 돌란 감독의 신작이다. 억척스럽지만 정많고 속 깊은 엄마 디안과 세상에서 엄마를 가장 사랑하는 유별난 사고뭉치 아들 스티브,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누구보다 따뜻한 이웃집 여인 카일라의 특별한 용기와 우정, 빛나는 사랑을 그렸다.

'클라우스 오브 실스마리아'도 '마미'와 같은 날 개봉한다. '클린' '여름의 조각들'을 연출한 프랑스의 거장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의 신작이다. 줄리엣 비노쉬, 크리스틴 스튜어트, 클로이 모레츠 등이 출연한다. 톱 배우 마리아가 20대 시절 자신에게 전성기를 가져다준 작품의 리메이크에 다시 출연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과 내면을 돌아본다는 내용의 영화다.

올해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맵 투 더 스타'는 크리스마스인 25일 개봉한다. 데이빗 크로넨버그 감독의 신작으로 할리우드를 둘러싼 여러 인간 군상의 이야기를 담았다. 배우 줄리안 무어가 이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칸영화제가 사랑하는 감독인 다르덴 형제의 신작 '내일을 위한 시간'은 2015년 새해 첫날인 다음달 1일 개봉한다. 복직을 위해 주말 동안 16명의 동료를 만나 보너스를 포기해 달라고 설득하는 여인 산드라의 이야기를 그렸다. 그동안 비전문 배우를 주로 기용했던 다르덴 형제가 프랑스 대표 여배우 마리옹 꼬띠아르와 작업한 작품으로 화제가 됐다.

/장병호기자 solanin@

스크린 수놓을 화려한 궁중服

영화 '상의원'이 억대급 의상 제작비를 동원해 조선의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궁중의복을 선보인다.

'상의원'은 조선시대 왕실의 의복을 만들던 상의원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움을 향한 대결을 그린 영화다. 순제작비 72억원 중 약 10억원이 의상 제작비로 쓰였다. 엑스트라를 포함한 3000여명의 출연 배우들의 의상을 만들기 위해 50여명의 제작인원이 약 6개월에 걸쳐 의상을 제작했다.

배우 박신혜가 연기한 왕비의 궁중의상은 기존 사극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함을 자랑한다. 보통 사극에서 쓰이는 가체의 무게가 5kg 가량인 것에 비해 박신혜가 착용한 가체의 무게는 20kg에 달했다.

조상경 의상 디자이너는 "최대한 제대로 된 한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평소 다른 한복을 보면서 가진 아쉬움을 '상의원'을 통해 풀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오는 24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인터스텔라' 1000만 보인다

개봉 32일 만에 900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가 개봉 32일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인터스텔라'는 개봉 32일째인 지난 7일 18만7851명의 관객을 추가하며 누적 관객수 910만1637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인터스텔라'는 '아이언맨3'(900만)를 제치고 역대 외화 흥행 순위 3위에 오르게 됐다. '아바타' '겨울왕국'에 이어 세 번째 1000만 외화의 탄생이 기대된다.

'인터스텔라'는 지구 멸망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터전을 찾아 우주로 떠나게 된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지난달 6일 개봉한 뒤 압도적인 영상미와 감동적인 부성애로 관객 마음을 사로잡으며 흥행 가도를 달려왔다.

지난달 3일 개봉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하 '엑소더스')과의 경쟁에서도 '인터스텔라'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주말 동안 '엑소더스'와 '인터스텔라'는 근소한 관객 차이로 박스오피스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오는 17일 개봉 예정인 '호빗: 다섯 군대 전투'와 '국제시장'과의 경쟁에서도 지금과 같은 기세를 이어간다면 1000만 관객 돌파도 가능하다.

한편 '엑소더스'는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7일 일요일에는 21만977명의 관객을 모아 누적 관객수 77만3724명의 관객을 기록 중이다.

/장병호기자

LPGA 투어 나설 '태극낭자' 확정

장하나·김세영 등 합류 …김효주·백규정과 신인왕 도전

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에 오를 한국 여자골퍼들이 결정됐다.

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의 LPGA 인터내셔널 골프장에서 열린 퀄리파잉스쿨 최종전 1~5라운드에서 호주 교포 이민지(18)가 합계 10언더파 350타로 앨리(미국)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라 출전권을 따냈다.

아마추어 여자 세계 1위를 지키다 프로로 전향한 이민지는 퀄리파잉스쿨을 통과함에 따라 내년 시즌 LPGA 투어 무대에서 뛸 수 있게 됐다. 퀄리파잉스쿨 최종전은 4라운드 성적으로 공동 70위까지 추려낸 뒤 마지막 라운드에서 내년 시즌 LPGA 투어 정규대회에 출전할 선수 20명을 성적순으로 선별했다.

장하나(22 비씨카드)는 전날까지 15언더파 273타로 단독 선두를 달렸다. 그러나 마지막 라운드에서 8오버파 80타로 부진해 공동 6위(최종합계 7언더파 352타)로 LPGA 투어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공동 9위로 마지막 라운드에 진출한 김세영(21 미래에셋)도 장하나와 나란히 공동 6위로 통과했다.

LPGA 투어 멤버 박희영(27 하나금융그룹)의 동생 박주영(24·호반건설)과 아마추어 김수빈은 5언더파 355타를 기록하며 공동 11위에 올랐다. 아쉽게도 이정은(26 교촌F&B)은 공동 28위에 머물러 출전권이 걸린 상위 20위 안에 들지 못했다. 공동 35위로 컷을 통과한 아마추어 앨리슨 리는 이날 1언더파 71타를 치고 공동 18위에 올랐으나 최종 통과자를 가리는 서든 데스 플레이오프에서 보기를 치는 바람에 아깝게 떨어졌다.

이로써 국내 강자들이 대거 LPGA 투어에 진출해 내년에도 미국 무대에서 '태극낭자' 들의 강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효주·백규정·장하나·김세영에 호주 교포 이민지까지 가세하면서 신인왕 경쟁도 불꽃이 튀게 됐다.

2011년부터 정규투어에 데뷔한 장하나는 올해까지 KLPGA 투어에서 6승을 올렸다. 장하나와 같은 해 정규투어에 입문한 김세영도 2013년에 3승, 올해 2승을 거두며 강자로 군림했다. 이에 앞서 김효주(19 롯데), 백규정(19 CJ오쇼핑)은 LPGA 투어 정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미국 무대 직행 티켓을 따냈다.

국내 톱랭커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내년 한국여자골프 무대에서도 '국내 1인자'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됐다. 1인자 자리에 가장 근접한 선수로는 허윤경(24 SBI저축은행)과 이정민(22 비씨카드), 전인지(20 하이트진로)가 우선 꼽힌다. 이들은 올해에도 김효주·백규정·장하나·김세영 등 강호들과도 밀리지 않는 실력을 뽐내며 다승왕 경쟁을 벌였다.

아울러 백규정과 함께 막판까지 신인왕 레이스를 펼쳤던 김민선(19 CJ오쇼핑)과 고진영(19 넵스)도 젊은 패기로 1인자 경쟁에 나선다. /김학철기자 kimc0004@metroseoul.co.kr

손흥민 EPL 빅클럽 가나?

英 언론, 토트넘·맨유·리버풀·아스널 영입 거론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레버쿠젠)에 대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구애설이 또다시 제기됐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스타는 8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2000만 파운드(한화 약 350억원)의 이적료를 내세워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손흥민을 원하는 구단은 토트넘뿐만이 아니다"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아스널 등도 다재다능한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특히 "손흥민은 토트넘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구상하는 영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다"며 "손흥민의 레버쿠젠 동료인 카림 벨라라비도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영입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언급된 2000만 파운드는 레버쿠젠이 지난해 함부르크 SV에서 손흥민을 영입할 때 지급한 800만 파운드(한화 약 139억원)보다 두 배가 넘는 액수다.

현지에서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빅 구단' 들의 러브콜을 받았다는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도 토트넘 영입설이 불거졌고 2012년 7월에는 리버풀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초반에 두자릿수 득점(11골)에 성공했다. 지난 함부르크 시절 3시즌 동안 78경기 20골을 넣었다. 레버쿠젠 이적 후 손흥민은 올 시즌 21경기에 나와 11골 2도움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만 5골을 넣으며 맹활약하자 잉글랜드 빅클럽들의 영입 대상으로 또 다시 이름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겨울 이적시장 개장을 앞두고 각종 설이 쏟아지는 시기인 만큼 실제로 손흥민이 레버쿠젠을 떠날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김학철기자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김성근 감독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

김성근 감독은 프로출범 이후 최초로 팬들이 만든 감독이다. 탁월한 지도력과 실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야구에 대한 열정, 치밀한 전략과 전술, 선수들의 영혼을 내놓은 카리스마로 꼴찌 한화를 탈바꿈 시켜달라는 기대였다. 아울러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육성해 강한 한화의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바람도 컸다.

요즘 김 감독을 둘러싸고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먼저 선수협회의 비활동기간 훈련 금지였다. 선수협회는 12월부터 새해 1월 15일까지 구단이 실시하는 어떠한 훈련도 못하도록 결정했다. 김 감독은 "비활동기간 훈련금지는 자살행위"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결국 김성근식 훈련에 대한 선수들의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하나는 외부영입에 대한 시각이다. 한화는 FA 시장에서 권혁, 송은범, 배영수까지 투수 3명을 영입했다. 김 감독이 강하게 원했다고 한다. 이기에 투수 임경완(39), 내야수 권용관(38) 등 노장 선수들이 입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재생공장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FA선수와 노장선수 영입은 내년 144경기 체제를 대비한 보강이자 도약의 카드이다. 사실상 내년 성적을 위한 포석이다. 김 감독은 당장 성적을 내려면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외부에서 힘을 충전했다. 이제 한화 팬들은 내년 시즌 탈꼴찌가 아니라 4강 이상의 성적까지 기대하고 있다.

외부보강은 내부육성과 대척점에 있다. 당장 FA 보상선수로 젊은 선수를 3명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삼성은 젊은 포수 김민수를 선택했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장들의 영입 역시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장종훈 타격 코치가 돌연 한화를 떠나 롯데에 입단했다. 공교롭게도 김성근 감독의 부임과 동시에 정민철, 송진우, 한용덕, 조경택, 강석천에 이어 장종훈 코치까지 한화의 레전드들이 모두 팀을 떠났다. 대신 선수, 코치 등 새 얼굴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생기는 이질성을 극복해야 한다. 김 감독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OBS 야구전문기자

프로농구 전적 (8일)

전자랜드	23	19	16	18	76
LG	23	25	28	22	98

프로배구 전적 (8일)

IBK기업은행	0	3	현대건설
현대캐피탈	2	3	한국전력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